

退溪의 朱子詩 理解**

—武夷權歌를 中心으로—

金 周 漢*

• 目 次 •

I. 序 論	2. 武夷權歌 理解
II. 本 論	3. 韓國文學批評史上의 위치
1. 朱子詩 關心과 受容	III. 結 論

I. 序 論

이 글은 제목 그대로 퇴계의 주자시 이해의 일단을 살피고자 하여 쓴 것이다. 퇴계의 시가 2000여수에 달하는 것으로도 그가 작시를 얼마나 즐겼는가를 알 수 있으며, 주자 역시 많은 시를 남겼기에 시인이라 불러도 되리라 생각한다. 주자는 퇴계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던진 사람이기에 그의 시도 퇴계에게 많이 수용되어 퇴계의 詩境을 가꾸는 데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먼저 퇴계가 주자의 시에 대해 얼마만한 관심을 가졌는가를 주로 그의 문집에 실린 왕복 書翰을 통해서 살피고, 또 아울러 주자시 수용 양상을 검토한 뒤, 두번째로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武夷權歌를 어떻게 이해하고 즐겼던가를 알고, 세번째로는 이런 權歌의 이해 태도가 우리 한국문학 비평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립

* 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 영남어문학회, 『영남어문학』 제10호(1983) 게재논문

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가 1982년 11월 28일 영남어문학회 제 71차 月例發表會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기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有關 論文을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¹⁾

II. 本 論

1. 朱子詩 관심과 수용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퇴계는 주자에게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영향을 받았다. 高峰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보면 퇴계가 얼마나 주자를 尊信했는가를 알 수 있다. 혹 지루한 느낌을 줄 지 모르겠으나 인용해 본다.

“……고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自信하지 말고 스승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주자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며, 동시에 천하 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古人不云乎? 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 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²⁾

-
- 1) 拙稿, 李退溪文學批評小攷(안동문화 제2輯,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1981. 12. 20)에서 인용한 것 외에 다수 論文이 있음.
李敏弘, 「武夷權歌」 수용을 통해 본 사립과 문학의 一樣相 -退溪·河西·高峰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輯, 한국한문학회연구회, 1982. 12. 30
李昌龍, 퇴계의 杜詩수용양상,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서울, 1982. 5. 30.
俞俊英, 九曲圖의 발생과 기능에 대해서 -한국 實景山水畫發展의 一例-. 考古美術 제151호, 1982. 9.
- 2) 答奇明彦 論四端七情 제1書. 增補 退溪全書 책1, 권16 書 407頁下.(성균관대학교 大同文化研究院 影印, 1978. 8. 15) 이하는 退全, 책, 권, 頁, 상하, 좌우 등으로 出處를 표시한다. 退溪年譜(책4, 언행록 권7, 年譜 중 127頁上左)에는 퇴계 60세 11월에 답한 것으로 되어 있음.

尊信의 정도가 이런 만큼 주자의 시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사실은 쉬 간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퇴계의 문인인 文峰 鄭惟一이撰한 言行通述을 참고한다.

“선생께선 시 짓기를 좋아하셨고, 도연명과 두보의 시를 즐겨 읽으셨으며, 晩年에는 더욱 朱子의 시를 즐겨 읽으셨다. 선생의 시가 처음에는 매우 清麗했으나 그 뒤로는 華靡한 것은 잘라 버리고 한결 같이 典實, 莊重, 簡淡한 詩境에 침잠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셨다. 문장은 六經에 뿌리를 내리고 諸子書를 참고하여 華와 實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文과 質이 적당히 어울려, 雄渾하면서도 典雅하고 清健하면서도 化평했으니 하나 같이 바른 마음에서 우러 나온 것이었다……

先生喜爲詩, 樂觀陶杜詩, 晩年尤喜看朱子詩. 其詩初甚清麗, 既而剪去華靡, 一歸典實, 莊重, 簡淡, 自成一派. 爲文本諸六經, 參之諸子, 華實相兼, 文質得中. 雄渾而典雅, 清健而和平. 要其歸, 則又粹然一出於正……3)

위에 인용한 글은 비록 퇴계 자신의 말은 아니지만 高足 門人의 기록이고 보면 믿을 수 있는 점이 많다 하겠다. 먼저 퇴계의 문집 서찰 가운데서 주자시에 관심을 가진 예를 열거해 보기로 한다. 우선 퇴계 53세 계축년에 李剛而(名은 楨, 剛而是 字, 號는 龜巖임. 1512~1571)에게 답한 편지를 본다.

“홀연히 주신 글월 받자 새 봄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말씀하신 晦菴의 感興詩⁴⁾를 覺軒이 註釋⁵⁾한 책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雲谷等 詩 一帙도 간행하신다면 얻어 볼 수 있을 테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序跋⁶⁾을 위촉하시는데 當世 문장가에게 부탁하

3) 退全 책4, 언행록 권1, 言行通述 門人 文峰 鄭惟一撰 20頁 上右.

4) 朱子 齋居感興 20수, 朱子大全(臺灣 中華書局印行) 책1 권 제4(文4로 略稱), 시. 이하 朱全으로 略稱함.

5) 覺軒註, 蔡註라고도 함. 覺軒은 주자의 제자인 蔡沈의 아들 模의 호. 자가 仲覺인데 주자가 이름과 자를 지었다. 주자의 感興詩를 註釋했음. 退全 冊四 退溪文集放證 권5 書 536頁 下左.

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저에게 하시니 마땅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
 (朱子詩 가운데서) 골라 뽑은 것이 참으로 훌륭합니다만 雲谷 26절⁷⁾
 에다가 奉同張敬夫城南雜詠 20수⁸⁾가 매우 아름다우니 함께 刻印할 수
 없겠는지요? 만약 卷帙이 이미 정해져서 어렵다면 강요할 순 없겠지
 요? 감사합니다.⁹⁾

위의 답서에서 우리는 李剛而가 주자시 간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계축년에 李剛而에게 답한 글¹⁰⁾에서 퇴계는 주
 자의 武夷權歌 前刻에 誤刻이 많으니 새로 얻은 寫本이 善本이라면 이
 善本으로 校對하여 改刊하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라고도 했
 다. 이에서 우리는 퇴계가 版本, 校讐學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문외한이긴 하나 우리 나라 版本學, 校勘學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위에서 우리는
 퇴계가 주자의 시 가운데서 齋居感興 20수, 雲谷 26詠, 奉同張敬夫成
 南雜詠 20수 등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앞의 편지로 퇴계가 실어 달라고 부탁하던 시가 제대로 실려
 서 출간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보내 주신 新刊 晦菴 諸詩를 읽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히
 은혜 잊을 수 있겠습니까? 感興詩 일찌기 본 적이 없었으나 權歌詩
 解¹¹⁾는 近間(누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어 보
 기를 목 마르게 기다리더니, 이제(蔡註와 陳註가) 合本되어 저에게까지

-
- 6) 雲谷微音後序인데 龜巖 續集에 보임.
 위와 동일, 攷證 권8 別集, 外集, 續集 610頁 下右.
- 7) 朱全 책1 文六 시. 雲谷 26詠.
- 8) 위와 동일, 文三 詩.
- 9) 答李剛而, 退全 책3 續集 권4 書, 74~75頁, 53세 癸丑年. 원문은 인용하지 않았음.
- 10) 위와 동일 75頁 左下.
- 11) 退全 책4 攷證 권4 書 518頁 上左에 보면 元나라의 懼齋 陳普가 “주자의 武夷 權歌 九曲詩는 意가 한 가닥 進道次第에 있지 단순히 武夷山水의 아름다움만 노래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註를 달았다고 했다.

들어 왔습니다. 古人(朱子)이 남긴 말씀을 천년 뒤에 다시 접하는 것만 같아서 감격이 더할 수 없이 큼니다. 제가 전에 雲谷, 城南 諸詠을 첨가 印刊해 주도록 바란 바는 雲谷을 노래한 시 중에서 12수¹²⁾만 신고, 26詠을 빼면 未備하겠고, 또 濯淸¹³⁾은 城南 20詠 중의 1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수만 신고 19수를 빼는 게 아쉬워서 감히 말씀드렸으나 제 바람대로 되지 못하여 한스러울 뿐입니다. 아마 君께서 그 시를 보고자 할 듯하여 적어 보내니 읽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¹⁴⁾

이 편지에서는 齋居感興 20수와 이를 蔡模가 註釋한 것, 權歌九曲 10수, 雲谷 26詠, 城南 20詠 등 76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龜巖集에 보면 퇴계집에는 없는 퇴계의 書가 실려 있는데 위의 작품 말고도 또 다른 시에 언급하고 있으니 인용해 본다. 먼저 李剛而의 글.

“처음 鑄字本 感興詩註解¹⁵⁾를 얻어 入板을 끝낸 뒤에 擬古8수,¹⁶⁾ 雲谷雜詩,¹⁷⁾ 武夷雜詠^{1,18)} 棹歌 10절,¹⁹⁾ 濯淸 1절²⁰⁾을 漁艇詩²¹⁾ 아래, 棹歌詩²²⁾의 위에 添錄하여 1편을 만들어 인쇄한 뒤 퇴계선생께 敬稟했다. 선생께서 渾陋하다 여기지 않고 丁寧·切當하게 가르쳐 주시기에 재삼 盥讀하고는 삼가 가르침을 따라, 城南 20詠, 百丈山 6詠,²³⁾ 雲谷

-
- 12) 朱全 책1 文6 詩에 雲谷雜詩 12수, 곧 登山, 值風, 翫月, 謝客, 勞農, 講道, 懷人, 倦遊, 修書, 宴坐, 下山, 還家임.
- 13) 위와 동일, 文3 詩에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 곧 納湖, 東渚, 詠歸橋, 船齋, 麗澤堂, 蘭澗, 書樓, 山齋, 蒙軒, 卷雲亭, 柳堤, 月榭, 濯淸, 西嶼, 淙琤谷, 聽雨舫, 梅堤, 采菱先舟, 南阜임.
- 14) 答李剛而, 退全 책1, 권21, 書 510頁 上左, 53세 癸丑년.
- 15) 5)번 주와 동일
- 16) 朱全 책1, 文1, 詩.
- 17) 위와 동일, 책1, 文6, 詩 雲谷雜詩 12수.
- 18) 위와 동일, 책2, 文9, 詩 武夷精舍雜詠并序. 精舍, 仁智堂, 隱求齋, 止宿寮, 石門塢, 觀善齋, 寒棲館, 晚對亭, 鐵笛亭, 釣磯, 茶竈, 漁艇. 12수.
- 19) 위와 동일, 武夷權歌十首.
- 20) 위와 동일, 책1, 文3, 詩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 중의 1수.
- 21) 18)번 주와 동일 詩 12수 중 맨 끝 수.
- 22) 19)번 주와 동일
- 23) 위와 동일, 책1, 文6, 詩. 石磴, 小澗, 山門, 石臺, 書閣, 瀑布 6수임.

26詠²⁴⁾ 등 모두 52수 및 宿休庵1律²⁵⁾을 擬古 제8장과 雲谷 제1詠 사이에 補入했다. 또 洞天1絶²⁶⁾을 漁艇과 棹歌 兩詩 가운데 填刻하고 濯淸1絶은 刊去하여 같은 종류(同題)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感興詩 뒤에 있는 卞春亭의 鐵字跋을 刪去했다. 무릇 보태고 빼는 것을 하나 같이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行과 字를 분배하여 編帙을 刊成해서 선생의 뜻을 끝까지 살렸으니, 이 글을 읽는 뒤 사람들이 어찌 이 책에서 느끼는 바가 없겠는가? 嘉靖 甲寅 龜巖居士 李楨은 삼가 기록한다.²⁷⁾

위의 글은 龜巖 李楨이 43세 때 쓴 글이니 퇴계 54세 때이다. 위의 글에서 우리는 剛而가 주자시를 골라 뽑아 간행하고 난 뒤 퇴계에게 稟했더니, 퇴계가 더 많은 시를 실을 것과, 순서를 詩題의 類에 따라 바로 잡을 것과, 또 刪 것 등을 요구하기에, 일일이 指數에 따라 작업을 끝내고 출간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요구한 내용이 담긴 글은 위에 인용한 龜巖의 글 바로 앞에 「附退溪先生書」라고 하여 실어 놓았다. 옮겨 본다.

“오른 쪽의 城南 20詠, 百丈山 6詠, 雲谷 26詠, 共 52수와 新刊에 보태어 실은 武夷雜詩 등의 작품은 辭旨와 理趣가 함께 어울려 매양 諷詠할 때마다, 遯世棲雲·抱道長終의 의사를 가지게 하는데, 현재 간행한 (朱子시) 選本에는 모두 빼어 버리고 신지 않았으니(朱子시를)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感興詩 以下 諸篇은 모두 越人의 章甫라 하더라도, (시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보게 한다면 어찌 이런 사실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뜻으로는 大州²⁸⁾의 능력으로 改刊코자 한다면 45板 工夫에 지나

24) 위와 동일. 雲谷, 南澗, 瀑布, 雲關, 蓮沼, 杉逕, 雲莊, 泉硤, 石池, 山楹, 藥圃, 井泉, 西寮, 晦庵, 草廬, 懷仙, 揮手, 雲社, 桃蹊, 竹塢, 漆園, 茶坂, 絶頂, 北澗, 中溪, 休庵.

25) 未詳, 或註 24)의 마지막 休庵을 말함인지.

26) 朱全, 책1, 文6, 詩. 武夷七詠 중 제2수인 「洞天」. 洞天, 天柱峯, 畫鶴, 仰高堂, 趨眞亭, 大小藏巖, 丹竈입.

27) 龜巖集 原集 권1 識, 文波文庫, 嶺南大圖書館, 原文은 신지 않음.

28) 「大州事力」이란 龜巖이 41세, 壬子 10월에 淸州牧使로 赴任했기 때문에 이렇

지 않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改刊의 어려움을 근심하겠습니까? ……卷末에 스스로 題識한 끝 부분에 「君子云吁謹識」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으나 語勢가 조금 局促한 것 같습니다. 滉의 생각에는 「博學君子改正云」이라고만 하고 「吁」자는 빼어 버리고, 바로 公의 姓名을 써서 「某謹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표현이) 병통이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퇴계 이황 景浩는 쓴다.²⁹⁾

이로써 龜巖이 41세 임자년 10월에 淸州牧使로 부임하여 주자시선집을 편집 출간하는 과정에서 퇴계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吁」자 하나까지도 퇴계의 의견에 따라 쓰지 않았음을 雲谷徽音後識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저번 權歌註解寫本을 얻었는데 그 속에 誤字, 乙字, 落字가 간간히 섞여 있었으나 善本을 구하지 못해 參較하질 못하고 그대로 入板했다. 그래서 늘 완전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올 봄에 盧子膺이 申靈川의 手書善本을 구하여 손수 베껴 보내 주길래 받아 읽었더니 ……그대로 두어 博學君子가 更考改正하길 기다린다. 乙卯 仲春 初吉 龜巖 李楨은 삼가 기록한다.³⁰⁾

이 글에서 보면 퇴계가 指教한 대로 「吁」자를 뺐음을 알 수 있다. 을묘년이니까 龜巖 44세, 퇴계 55세 때로 두 분이 주자시 간행에 즈음하

게 말했을 듯하다(龜巖 原集 권2 부록 행장). 또 행장에 보면 龜巖이 수령으로 있을 때 많은 책을 간행했고 자기 고을에 冊板이 없을 때에는 이웃 고을 수령에게 出刊을 종용했다고 적고 있다. 이 책 중에는 朱子詩集도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中朝性理之書, 或有未盡刊行於吾東者, 亦與退溪往復訂定相興跋之. 如孔子通紀, 二程粹言, 程氏遺書, 外書, 伊洛淵源續錄, 濂洛風雅, 擊壤集, 延平答問, 朱子詩集, 范太史, 唐鑑, 丘瓊山, 家禮儀節, 薛文清, 讀書錄, 胡敬齋, 居業錄, 皇明名臣言行錄, 理學錄, 醫無閭先生集 等書, 必入梓於所歷州府. 雖在散地, 若見性理書, 可羽翼經傳而無板本者, 亦力勸傍邑守宰, 必使刊行後已……」

29) 28)번 주와 동일

30) 28)주와 동일

여 주고 받은 내용들이다. 곧 龜巖이 41세 임자년 10월에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주자시선집을 출간했으니 아마 이듬해 42세 계축년인 것 같다. 위 註 9)의 퇴계 편지에선 龜巖이 주자시를 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雲谷26詠, 城南20詠을 받아 보고 補刻, 刪削, 紙面의 조정 등을 부탁한 것이고, 부탁대로 되지 못해 한스러워하는 사연도 들어 있다. 그리고 註 29)의 편지는 더 많은 주자의 시를 실어 줄 것을 부탁한 편지인데, 龜巖이 指教에 따라 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가 龜巖 44세, 퇴계 55세인 갑인년이었으며 이것이 增補개정판이었고 그 이듬해 을묘년에 역시 퇴계의 지시로 「吁」자를 빼고 마지막으로 雲谷徽音後識를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퇴계가 관심한 주자의 시는 거의 모두가 산수경치를 읊은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蔡模의 感興詩 註나 陳普의 權歌詩 註도 당시에 많이 읽혔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註解가 당시에만 읽힌 것이 아니고 卞春亭 시대(1369~1430, 공민왕 18~세종 12)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볼 수 있다. 朱詩 간행에 읽힌 사연은 그만 두고 다음은 제자들과의 주자시 해석과 감상에 관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퇴계가 55세 을묘년 仲春에 李剛而에게 답한 글을 보면 주자의 西林感慨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사연 바로 앞에는 퇴계가, 剛而가 「竿木隨身」이란 말에 대해 물었을 때 답한 내용이 실려 있다. 곧 이 말은 본래 禪家의 話頭인데 그 本語인 「竿木隨身 逢場作戲」라고만 적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른다. 때문에 여기에 인용한 의미도 또한 알 수 없게 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먼저 本語의 意趣를 알고 난 뒤에 이 글(延平答問)을 읽으면 어려울 리가 결코 없을 것이다.³¹⁾라고 답했다.

그리고 퇴계는 이 말의 뜻을 答吳子強別紙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31) 答李剛而 退全 책1 권21 書 511頁, 下右.

“竿木은 오늘날 車上에 곧게 세워 놓이하는 나무입니다. 「竿木隨身, 逢場作戲」라는 말은 禪家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場은 곧 優戲하는 장소이니 ‘몸에 이런 도구가 있으면 어디서나 작용하여 스스로 그만 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竿木 如今豎立車上作戲之木也. 竿木隨身, 逢場作戲, 禪家多用此說. 場卽優戲之場, 言身有其具, 則隨處作用 不能自己也.³²⁾

그러나 위에 인용한 것은 剛而에게 주는 편지의 골자가 아니고 주된 내용은 오히려 다음에 예거하는 淫聲과 雅樂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다만 淫聲을 구해서 雅樂과 견주고자 한다면 먼저 그 淫聲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될 것이니 깊이 경계해야만 됩니다.”

第恐欲求淫聲以較雅樂, 先已蕩於淫聲 是不可不痛戒耳.³³⁾

이는 참된 雅樂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상반되는 淫聲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으로, 목적도 좋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듯하다. 이는 퇴계가 佛書를 읽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혹 거기에 물들어 빠져 들어 갈까 두려워서 읽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³⁴⁾

이렇게 淫聲을 멀리해야 雅樂을 바르게 들을 수 있듯이 성현의 글을 專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吾儒의 학문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기 위해 禪學의 이론을 빌어 온다는 것은 안될 말이니 그런 전례가 바로 延平答問에 있는 朱子와 李侗과의 문답내용 중의 「竿木隨身」³⁵⁾이란 것이다.

32) 答吳子強問目 健, 延平答問「竿木隨身之說」條. 退全 책2 권33 書 180頁 下中.

33) 31)번 주와 동일

34) 退全, 책4, 언행록 권2, 類編 42頁 下右. 「右記先生衛道之嚴凡六條」중 제1條에 「先生於異端 如淫聲美色, 猶恐絕之不嚴 嘗曰我欲看佛經以嚴其邪遁, 而恐如涉水者初欲試其淺深, 而竟有沒溺之虞耳. 學者但當讀聖賢書, 知得盡, 信得及, 如異端文字全然不知亦不妨也(鶴錄).」

그리고 이어서 주자의 시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感慨詩에 언급했다. 이 시는 주자의 사상 轉變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퇴계가 禪家의 용어에 이어 바로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퇴계는 이 글에서 西林感慨詩라고 했고 또 朱子大全 詩 初卷에 있다고 했으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四部備要本(臺北, 中華書局 影印本)에는 西林感慨詩란 제목도 없고 또 초권이 아니라 제2권에 있는데 퇴계가 말한 것은 어떤 판본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西林은 西林院을 가리키며 僧 惟可師의 집이 있는 곳이다. 「感慨」란 말은 주자의 西林院詩에 나온다. 주자가 西林院에서 쓴 시는 모두 6수에 달한다. 그 西林韻을 사용한 시도 2수 있다.³⁶⁾

첫째, 題西林院壁 3수, 둘째, 題西林可師達觀軒 1수, 셋째, 再題并序 1수, 넷째, 示西林可師 2수인데 모두 7언이다. 感慨란 말이 들어 있는 시는 이 중 셋째 再題라는 제목이 붙은 시이다.

古寺重來感慨深, 小軒仍是舊窺臨,
向來妙處今遺恨, 萬古長空一片心.

起句에 感慨란 말이 들어 있어서 퇴계가 西林感慨詩라고 한 게 아닐까 한다. 이 시에는 주자가 직접 쓴 서문이 있다.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紹興 景申년 겨울(1160년, 주자 31세) 주자가 그의 스승 隴西선생(李侗, 자 愿中, 호 延平)을 배알한 뒤 西林院의 惟可師의 사택에 묵었다. 可師가 軒을 지었는데 鉛山尉 李公 端父가 達觀軒이라고 이름을 지었다.(이는 賈誼 鵬鳥賦 중 「達人大觀, 物無不可」에서 딴 것) 주자가 장난 삼아 시를 지어 준 뒤 잊어 버렸다. 壬午 春(1162, 주자 33세) 다시 선생 延平을 뵈고 옛날 시를 읽어 봤으나 주자의 마음엔 한 치만 큼의 진전도 없어서 세 번 크게 탄식하고 시를 없애고자 했으나 可師가 말려서 손수 써 주고 까닭을 적었다.

35) 退全, 책4, 攷證 권5 書 537頁 上右.

36) 朱全, 책1, 文2, 用西林舊韻 2수.

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후일 다시 볼 때 교훈의 자료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可師도 자신과 같이 여러 곳을 유람하고 佛法의 大意를 묻다가 아쉬운 채로 돌아 왔으니 주자 자신의 뜻을 알아 줄 것 같다고 하고 “3월 9일에 烹는 적는다”고 했다.³⁷⁾ 주자는 24세에 처음 延平을 뵈고, 29세 때 재차 만났으며, 31세 때 정식으로 弟子禮를 갖추어 가르침을 받고, 33세 때 四次 拜見, 34세 10월에 延平이 作故한다. 이듬해 35세에 선생 延平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통곡한 것이 주자가 延平을 從遊한 始末이다. 이래서 주자는 스승에게서 깊이 있는 학문을 못 배운 사실을 못내 아쉬워 하곤 했다.³⁸⁾

퇴계가 西林感慨詩에 관심한 까닭은 아마 이 시가 주자의 思想轉變을 잘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일 게다. 주자의 유가사상의 발전 과정은 그만 두고라도 더욱 중요한, 釋·老에서 유학으로 일대 전환을 했던 자취가 이 西林院에서 쓴 6수의 시에서 역력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삼아 주자의 가정 교육 환경과 부친 사후의 수업 및 延平에게 정식으로 師事하던 내력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자의 부친은 이름이 松, 字는 喬年, 號를 韋齋라고 했다. 詩·文에 능하여 관직을 역임하고 實錄編修에 참여했으며, 끝내는 金國과의 和議를 주장하는 秦檜와 뜻이 맞지 않아 외직으로 나왔다가 벼슬을 그만 두고 물러났다. 성질이 조금하면 도를 해롭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西門豹)이 성질 급한 것을 고치려고 질긴 가죽을 차고 다녔다는 고사를 따라 齋를 韋齋라고 했다 한다.³⁹⁾ 또 부친의 인품에 대해서는 “어려서 豪爽하여 남을 놀라게 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여 賈誼, 陸贄의 학문을 흠모했으며 그뒤 龜山 楊時의 문인에게 도를 묻고 학업을 연마했다.”⁴⁰⁾

37) 朱全, 책1, 文2, 詩 再題并序.

38) 答何叔京 32書 제1書, 제2書, 朱全, 책5, 文40. 答林擇之 33書 제20書. 위와 동일, 文43等에서 스승을 일찍 여윈 슬픔을 토로했다. 곧 앞의 두 편지에서는 각각 「孤負此翁耳」, 「辜負教育之意」, 뒷 편지에서는 「遽有山頽梁壞之歎」이라고 했다.

39) 皇考朱公行狀, 朱全, 책11, 文97.

40) 與陳君舉書, 朱全, 책4, 文38.

고도 했다. 또 “先君子께서 젊어서 物外高인과 交遊했다.”⁴¹⁾ 고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주자는 부친의 학문 연원이 龜山 楊씨의 문인에 있다고 했으나, 더 구체적으로는 龜山의 문인인 羅從彦에게서 배웠다고 했는데 龜山은 程子에게서 배웠으니 바로 程씨의 학문에 연원이 닿고 있다.⁴²⁾

이로 볼 때 부친 松의 학문이 기본적으로는 유가의 학문이지만, 豪爽하여 物外高人들과도 교유했던 폭이 넓은 인품의 소유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래서 주자는 어릴 적에 儒書를 배웠으나 14세에 부친을 여의고는 遺命에 따라 籍溪 胡憲 原仲, 白水 劉勉之 致中, 屏山 劉子翬 彥冲 3인에게 父事之를 하게 되었다.⁴³⁾ 그러나 위의 3인은 佛·老에 깊이 관심한 분들이기에 소년 주자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며 주자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⁴⁴⁾

특히 불교는 禪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한다. 부친의 庭訓으로 古人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나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釋·老 사이를 출입한지가 십여년이나 되었다⁴⁵⁾고 했으며, 空妙한 세계에 이십여년이나 마음을 헤메이게 했다⁴⁶⁾고도 고백했다. 이래서 심지어는 19세 때 禪에 관한 영성한 지식으로 科試에 까지 합격했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곧 주자가 同安縣 主簿로 부임하던 22세부터 26세(辛未~乙亥) 사이의 시를 손수 모아서 牧齋淨稿라 했는데 이 5년 사이에 쓴 시에는 도가적·불교적 정신세계를 동경하는 詩語와 詩意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⁴⁸⁾ 그

41) 書先吏部與淨悟書後, 朱全, 책4, 文84.

42) 延平先生李公行狀, 朱全, 책11, 文96.

43) 42)번 주와 동일

44) 朱子一, 自論爲學工夫, 朱子語類(이하 語類로 약칭함), 책7, 권 제104. 臺灣, 正中書局印行, 中華民國 59년.

45) 答江元適, 朱全, 책4, 文38.

46) 答薛士龍, 朱全, 책4, 文38.

47) 同註 44) 前條.

48) 題謝少卿藥園二首의 題下에 小註로 「自此詩至卷終 先生手編 謂之 牧齋淨稿」라

러나 주자가 24세 때 延平을 만나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점차로 유가 爲己之學의 골자인 正心, 誠意의 학문(心學)에 깊이 몰두하게 된다.⁴⁹⁾

朱子語類에는 籍溪, 屏山에게서는 此道(儒家之學)를 들을 수 없어서 부친과 同門友⁵⁰⁾인 延平 李侗에게 師事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자 25세(甲戌), 26세(乙亥) 양년에 聖人書를 읽어 성현의 언어에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유학으로 돌아 서게 되었다고 한다.⁵¹⁾ 그 뒤 29세 때 재차 延平을 뵈고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관심하던 懸空玄妙한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日用著實工夫를 하게 된 것이며 더욱 經學工夫로 實理를 터득하여 이전에 사사하던 諸人들의 견해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한다.⁵²⁾

31세 때 3차로 延平을 뵈고는 드디어 제자례를 갖추어 수학하게 된다. 延平은 이 해에 그의 친구 羅博文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자를 칭찬하기를, 자기의 스승인 羅從彦 이후에 이같은 사람을 못봤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禪僧 謙開善에게서 裏面體認의 공부를 배웠기에 延平과 토론할 때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었으나 끝내는 도리 그 자체에 구애되지 않고 日用處에 전심노력하였다고 적고 있다.⁵³⁾

31세 때 西林院에서 延平과 아침 저녁 토론하면서 쓴 시가 있었고, 西林感慨라고 하는 시는 2년 뒤 33세 때 와서 다시 쓴 것이기에 제목 또한 「再題」라고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주자가 4차나 延平과 토론하면서 얻은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道理를 日用人生上 融會하

했음. 朱全, 책1, 文1詩.

錢穆, 朱子從遊延平始末, 朱子新學案(이하 錢案으로 약칭함.) 책3,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國 60년.

劉述先, 朱子哲學思想的發展與完成 21~50페이지, 臺灣 學生書局, 中國 71년 2월 초판.

49) 同註 42), 44) 및 清 王懋竑撰 朱子年譜 (이하 王譜로 略稱함) 권1, 上, 八頁, 臺灣 世界書局, 中國 62년 4월 三版.

50) 42), 44)주와 동일

51) 錢案, 책3 16~17頁.

52) 위 주와 동일.

53) 同註 49)의 王譜 16頁 및 錢案 책3 27頁.

라는 것], 둘째는, 「古聖經義를 읽어야만 한다는 것」, 셋째는, 「理一分殊에 대한 것인데 어려운 곳은 理一 쪽이 아니라 정작 分殊 쪽이라는 것」이다.⁵⁴⁾ 理一에 집착했던 주자는 점차 分殊를 중요시하게 되었음은 주자의 孫婿 趙師夏가 쓴 跋延平答問에서 잘 나타난다. 곧 주자는 趙師夏에게 말하길 자신은 「好同惡異, 喜大恥小」의 기질이 있어 延平과 의견이 항상 어긋났다는 고백이 그것이다.⁵⁵⁾

또 分殊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釋·老 특히 禪의 사고와 크게 다른 것이라 한다. 위에서는 주자 33세까지의 학문과 사고의 변천 과정을 약술했다. 어쨌든 再題詩 곧 西林感慨詩는 釋·老 더 좁혀 말하면 禪의 思考에서 멀리 떠나고, 延平과 토론을 거쳐 확신을 갖게 된 뒤의 性情을 노래한 것이기에 지극히 중요한 시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계가 이 시를 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武夷權歌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기에 상세히는 다룰 수 없으나, 다만 李剛而의 절문은 여러 조목이 있다.

우선 「萬古長空一片心」, 「底是高人達觀心」, 「泡沫風燈敢自憐」의 세句인데, 끝 句는 權歌를 살필 때 언급하기로 하고 앞의 두 句에 대한 퇴계의 해설을 옮겨 본다. 原詩를 인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다.

깊고 깊은 雲房은 아득하고 그윽해
 헌함의 계단이야 순식간에 올랐네.
 발 걷고 바라보니 먼 산만 푸르는데,
 무엇이 高人들의 달관한 마음인지?
 窈窕雲房深復深, 層軒俄此快登臨,
 卷簾一目遙山碧, 底是高人達觀心.⁵⁶⁾

옛 절을 다시 오니 감개가 무량해,
 작은 헌함 올라 보니 옛 모습 그대로네.

54) 錢案, 책3 35頁.

55) 王普, 13頁, 29세條.

56) 題西林可師達觀軒, 朱全, 책1, 文2, 詩.

지난 날 묘한 경지 지금엔 한스러워,
 긴 세월 허공 중에 한 가닥 마음이어.
 古寺重來感慨深, 小軒仍是舊窺臨,
 向來妙處今遺恨, 萬古長空一片心.⁵⁷⁾

먼저 경신년 겨울 주자 31세 때 지은 앞의 시 「底是高人達觀心」 1句의 물음에 대한 퇴계의 답을 옮겨 본다.

「底是高人達觀心」의 「底是」는 「何者是」 곧 「무엇이 무엇이나?」란 뜻과 같습니다. 대개 賈賦(賈誼의 鵬鳥賦)의 「통달한 사람이 크게 보니 어떤 물이든지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네(物我一體)」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惟可師가) 그 말을 빌어 軒名을 達觀軒이라 했기 때문에 「一目」 가운데는 다만 「遙山碧」 곧 「먼 산이 푸르다」라는 생각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高人の 達觀心」인지 모르겠다고 (朱子가) 말한 것입니다. 佛者가 말하기를 世間の 萬法은 일체가 마음으로부터 조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도 그 말을 따라서 (惟可師에게) 한번 물어 본 것일 따름입니다.

底是高人達觀心. 底是猶言何者是也. 蓋賈賦 : 達人大觀, 物無不可. 今取以名軒故謂一目之中 只有遙山碧而已. 不知何者是高人達觀心耶? 佛者云 : 世間萬法, 一切由心造, 故此亦因其語而試問之耳.⁵⁸⁾

주자가 이 때도 禪僧 惟可師와 論難을 하곤 했으나 역시 延平을 만나기 이전과는 많은 심경의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달관이란 말에 대해 물어 본 것이 된다. 여기서 퇴계는 佛者の 「世間萬法, 一切由心造」라는 말을 가지고 주자가 可師에게 물어 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자는 佛·老를 엄격히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應觀法界性, 一切由心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⁵⁹⁾

57) 再題, 위 주와 동일.

58) 退全, 책1, 권22 書, 539頁 下中.

59) 答王子合 遇 18書 중 제9書 丁未(58세) 12월 25일과 제10書. 朱全, 책6, 文 49 및 책9, 文70 記疑에 「……又云 心卽性 性卽天, 天卽性, 性卽心, 此語亦無

때문에 퇴계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벌써 주자의 儒·釋異同을 분명히 구별하기 시작한 심경을 간파했다고 보겠다. 주자는 34세 때 汪尙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釋氏之說에 심취했다가 그 뒤 先生君子(延平 李侗)의 가르침을 받고는 불교를 버리고 吾學(유학)에 종사했다고 했다.⁶⁰⁾ 이로 볼 때 주자의 심경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再題詩의 「萬古長空一片心」에 대한 剛而의 물음에 보낸 퇴계의 답서를 살펴 보자.

「萬古長空一片心」: 이 句에 대해서는 滉도 늘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句에서 「向來妙處今遺恨」이라 하고는 이 句로 바로 연결하였으니 이는 바로 (再題詩의) 序 가운데서 말한 ‘세월은 흘렀건만(31세에서 33세까지 만 2년) 내 마음의 境界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長空一片心」이란 것은 그 語意가 曠蕩虛邈하여 허공 중에 달아 놓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전혀 禪家의 頓超하려는 氣味 같을 뿐, 吾儒가 心을 설명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는 선생(朱子)께서 이 때 새로 이 禪學의 그릇됨을 깨닫고, 또 僧房에 寓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느낀 바 있어 스스로 말하길 ‘지난 날 妙悟處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遺恨이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이나 하면 곧 吾心을 萬古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허공 중에 걸려 있는 하나의 고독한 물체인 것처럼 오인해서 학문의 길에 잘못 발을 들여 놓았음이 이와 같아 한스럽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풀이한다면 어떨까요?”

萬古長空一片心 此句滉亦每以爲疑. 觀其上句 謂向來妙處今遺恨 而系以此句. 正是序中所謂 歲月逝矣 而予心之所至者, 未尺寸進焉者. 但所謂長空一片心者 語意曠蕩虛邈懸空說著. 全以禪家頓超氣味, 不類吾儒說心處. 無乃先生 於是時 新覺禪學之非, 因寓僧房而有感於此事, 自言向來自以爲妙悟處 今却有遺恨者, 何也? 卽誤認吾心爲 萬古長空一片孤懸底物. 其誤入如此. 所以爲可恨云爾耶?⁶¹⁾

倫理. 且天地乃本有之物, 非心所能生也. 若曰心能生天之形體, 是乃釋氏 澄成國土之餘論, 張子嘗力排之。」

60) 朱全 책4 文30 答汪尙書 11書 중 제2書(癸未, 34세 6월 9일).

여기서 퇴계는 儒·佛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는 「心」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주자는 觀心說이란 글에서 「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문기를 ‘佛者에게 觀心說이란 말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무릇 心이란 사람이 그것으로써 一身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서 하나이지 둘이 아니며, 주인이지 客이 아니며, 物을 명령하는 것이지 物에게 명령 당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心으로 物을 보면 物의 理가 보이지만, 이제 다시 반대로 物으로써 心을 본다고 한다면 이는 이 心 밖에 또 다른 하나의 心이 있어서 이 心을 管攝한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주인입니까? 客입니까? 物을 명령하는 존재입니까? 物에게 명령을 당하는 존재입니까? 이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그(佛者)의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或問 佛者有觀心說 然乎? 曰 夫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一而不二者也, 爲主而不爲客者也, 命物而不命於物者也. 故以心觀物則物之理得. 今復有物以反觀乎心, 則是此心之外復有一心, 而能管乎此心也. 然則所謂心者爲一耶?, 爲二耶? 爲主耶? 爲客耶? 爲命物者耶? 爲命於物者耶? 此亦不待教而審其言之謬矣...62)

또 釋氏論 上下편이 있는데 그 上편에서는 맹자의 盡心知性, 存心養性과 釋氏의 識心見性에 대한 물음에 주자가 답하고 있다. 글이 길지만 전부 인용해 본다.

어떤 사람이 문기를 맹자가 盡心知性, 存心養性을 말한데 비해 釋氏之學에서도 역시 識心見性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그 道理가 우연하게도 같은 점이 있다고 어찌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자 가로대 儒佛이 다른 까닭은 바로 이 한 마디일 뿐입니다. (혹 말하기를)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드리지요. 「性」이라고 하는 것은 天이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며 「情」이란 것은 性이 物에 응해서 心

61) 58)번 주와 동일

62) 觀心說, 朱全, 책8, 文67.

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心」이란 것은 사람이 그것으로써 一身의 주인으로 삼아 性을 統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仁義禮智는 性이기에 「心の體」가 되며, 惻隱, 羞惡, 恭敬, 辭讓은 情으로서 「心の用」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이) 民에게 衷(心)을 내려 주니 物이 있으면 則이 있다.」라는 말은 -중간에 글자가 없어진 곳이 많음, 필자-그(佛者)의 「識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별도로 한 마음을 설정하여 놓고 그것으로써 이 心을 안다는 말이며 그들이 말하는 「見性」이란 것도 「民衷, 物則」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性의 본연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物의 感하는 바와 情의 發하는 바가 마땅한 道理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佛者는) 한 몸의 累가 된다 하여 모두 끊어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天常을 거역하고 人理를 모두 없애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니, 그렇다면 儒釋의 다른 점이 본디 이 한마디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或이) 말하기를 釋氏가 見性에 대해 무식하다는 말은 수궁이 갑니다만 「心」에 이르러서는 吾儒는 「다하고 간직한다」고 하고, 저네들은 「안다」고 하니 어째서 다르며 또 따로 한 마음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어찌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대답하겠습니다. 마음이란 우리 一身의 주인으로서 性과 情을 통솔하는 것이기에 하나이지 둘이 아니며, 주인이지 客이 아니며, 物을 명령하지 物에 명령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物이 (마음을) 혹 덮어 버리기에 그 밝음이 비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사로움이 극복되지 못해서 物이 마음에 累를 끼치게 되어 그 (心の) 體가 간직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聖人は 사람들로 하여금 窮理하여 포용할 수 있는 量을 극대화하고 사사로움을 이겨서 體(心の)를 해롭게 하는 용인을 제거시키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기에 盡心하여 存心하는데 있어서 힘쓰는 게 서로 다르나 모두가 하나(一心)로 인해서 萬가지에 대응하며 主人으로서 客을 待하며 命物者로서 物을 명령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 마음(心)을 알아서 이 (다른) 마음을 간직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釋氏들이 識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면 (心을) 반드시 「收視反聽」하여 그 體를 恍惚한 가운데서 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눈으로 눈을 보고 입으로 입을 씹어서,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할 뿐더러 그 형세는 반드시 그 사이에서 서로 대립, 갈등(汝爾)하게 되니 이것이 따로 한 마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一心을 따로 설정한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주인이 客이 되며 ...

… 또 텅빈 상태로 스스로의 성을 쌓고 외부와 등을 돌려서 「情」을 없애고 「事」를 없애으로써 스스로 군신, 부자간의 인륜을 버린다면 「心の用」 또한 없어집니다. …… 異端邪說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무리들이 대개 실제로 황홀간에 본 바가 있는 듯하여 즐기면서 形骸를 버리는 데까지 이르러도 싫어하지 않고 死生の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은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 드리지요. 그 「心の用」이 바깥과 交渉하지 않고 그 體가 내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스스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志가 일을 일으켜 절실하고 그 동정의 기들이 심히 위태롭고 절박합니다. 이 때문에 정신의 極에 도달하여서 一旦에 아득하여 무엇을 상실한 것 같이 되니 근세의 「看○之法」이 여기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두가 莊周의 「承蜩削鑿」의 논설에 근원을 두면서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天理에 어두우면서도 이것만은 힘써서 사사롭게 한다면 君子의 문에서 얘기할 만한 것이겠습니까?⁶³⁾

위의 글에서 우리는 儒釋異同에 대한 주자의 견해를 볼 수 있었다. 곧 心은 하나며, 주인이며, 命物者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불가에서 말하는 「一切唯心造」의 견해도 반대함을 보았으며 「統性情」과 「體·用」의 관계 설정으로 佛家の 이론을 논박함도 보았다. 「心性情」 3分の格局을 주장하는 주자이기에 張子の 이론을 옹호하며 辟佛한다.⁶⁴⁾

주자의 心은 統性情하는 것이다. 그리고 程伊川의 「性卽理」 편에 서기에 心の 體는 性·理요, 心の 用은 情·氣이다. 따라서 情用은 氣에 해당된다. 그래서 心은 理氣를 아우르고 性情을 統轄하게 된다. 그러나 불가에서 性を 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性を 體인 理로 보는 유가의 「心觀」엔 맞지 않는다. 天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性이라고 한다.

63) 釋氏論上 建安 吳應樵家藏 湯東潤跋, 朱全, 책12, 別8. 錢穆은 윗글에 「朱子曰」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자 자작이 아닌 것 같으나 文辭를 보니 그의 文人 중 高足弟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은 글이라서 인용한다고 했다. 錢案 책3 朱子論禪學上 514頁.

64) 牟宗三, 佛家體用義之衡定, 心體與性體 제1책, 臺灣, 正中書局, 中國 62년 10월 臺2版.

고로 性은 본래 絶對 純善의 표준이다. 이 天理, (本然之)性에 따라 살아야 한다. 「道心을 항상 一身의 主」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佛·禪에서는 「性을 作用」으로 본다.

그러나 주자는 작용 곧 「用」은 性卽理의 理가 아니라 理氣의 不離不雜으로 봐서 存養省察로 中節이 될 때 性理가 실현되지만 不中節 될 땐 性理가 바로 실현되지 않아 善不善의 갈림길이 된다. 이런 것을 두고 性이라고 하니 禪家の 妄念이 생긴다고 본다. 주자는 48세 때 禪家の 「猖妄狂行」하고 縱恣하여 檢束이 없음을 비판했다. 「作用是性」의 비판이다. 心의 作用은 情이요 氣이기에 有善不善이다. 그렇기 때문에 氣質之性을 잘 살펴 本然之性에 맞도록 성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함을 비판한 것이다.⁶⁵⁾ 「作用是性」을 살펴보자.

“작용이 性이다. 눈에 있어서는 (그 작용이) 보이며 귀에는 聞, 鼻에는 嗅香, 口에는 談論, 手에는 執捉, 足에는 運奔이 작용이라는 것이니, 곧 告子가 주장하는 「生을 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손으로는 잡고 끌어 당긴다고 한다면 칼을 (손에) 잡고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性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龜山(楊時)이 龐居士의 말을 例擧하여 말하기를 「神通妙用은 運水搬柴」 곧 「먹을 물을 길어 오고 썰 나무를 날라 오는 것(이 운반 작용 중에 神妙한 性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천천히 어른 뒤를 따라 간다」고 하는 (맹자의) 말에 비유하니 역시 이 병(作用是性)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 「천천히 어른 뒤에 간다」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앞질러 어른을 뒤로 두고 달리는 것」이 不敬함을 모르는 것이 된다. 만약에 運水搬柴가 곧 妙用이라고 한다면 「徐行·疾行」모두를 공경스런 행동과 마음 가짐이라 할 수 있을까?⁶⁶⁾

65) 朱子語類, 책1, 권 제12, 正中書局印行, 中國 62년 12월, 臺2版, 이하 語類로 약칭.

朱子論禪學上, 錢案, 제2책 502頁. 「異端之學, 不察氣質情欲之偏, 率意妄行, 便謂無非至理, 此尤害事. 近世儒者之論, 亦有流入此者, 不可不察.」

66) 釋氏, 語類, 권126. 原文 인용 않음.

孟子或問, 권12, 朱子 48세 6월에 成書, 錢案, 제3책 참고.

仁義禮智를 性으로 보지 않고 視聽言動을 性으로 본 禪家의 주장을 비판한다.⁶⁷⁾ 이 외에도 儒釋異同을 강조한 예는 문집에 많이 나타나 있다.⁶⁸⁾

이러한 주자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퇴계의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퇴계의 생각에는 주자가 「再題」시를 썼던 33세 때에 延平을 네 번이나 만났던 터이라 禪學의 그릇됨을 깨닫고 종전에 吾心 곧 사람의 마음이 萬古長空에 외로이 달려 있는 客物처럼 생각했던 것을 한스럽게 여겼던 것이라고 풀이한 게 아닌가 한다. 禪家의 工夫는 頓超直入 곧 頓悟를 주장한다. 이는 聖學에서는 下學을 무시하고 上達부터 관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맹자의 「宋人과 같지 말라」⁶⁹⁾는 교훈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주자가 延平에게서 들은 3대 요점 중의 하나인 理一分殊의 교훈에도 어긋난다. 곧 理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작 어려운 것은 分殊의 세계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퇴계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⁷⁰⁾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퇴계가 西林院詩에 관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南嶽唱酬集⁷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갈까 한다. 이 南嶽唱酬錄을 朱子年譜 38세조에서는 이렇게 써 놓았다.

“冬 11월에 南軒 張公과 함께 南嶽 衡山에 오르다. …… 이 달 6일 庚午에 潭城으로부터 南嶽으로 가다. 10일 甲戌에서 13일에 이르러 산에 오르다. 16일 庚辰에 내려 오다. 19일 癸未에 南嶽을 떠나고 23일 丙戌에 櫛州에 이르다. 다음 날 敬夫와 헤어지고 伯崇, 擇之와 동쪽으로 돌아 오다. 무릇 28일 만에 집에 도착하니 12월 20일이었다. 甲戌에서 庚辰까지 칠일간 지은 시를 묶어 南嶽唱酬集이라 하고 敬夫가 序文을

67) 66)번 주와 동일 「……吾儒所養者是仁義禮智，他所養者只是視聽言動……」

68) 答趙致道 師夏，朱全，책7，文59.

69) 맹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勿助長也, 無若宋人然……」

70) 拙稿, 李退溪文學批評小攷.

71) 答李剛而, 退全, 책1, 권22 書 533頁 上右, 壬戌 62세. 책4, 攷證 권5 書 540頁 上右에는 「皇明吉水鄧淮編爲集」으로 되어 있음.

쓰다. 丙戌에 贈答한 시에 대해서는 문집에 南嶽遊山後記⁷²⁾가 있다. 伯崇, 擇之와 동쪽으로 돌아 올 때의 원고는 東歸亂稿⁷³⁾라고 했으며 문집에 東歸亂稿序가 있다.⁷⁴⁾

南軒은 이름이 栻, 字가 敬夫로 주자의 道友이며, 范伯崇. 林擇之도 모두 주자와 학문을 강론하던 直諫多聞의 벗들이다. 뜻 맞는 道友들과 遊山玩水하며 詩情을 누를 길 없어 지은 시들을 모았고, 그에 관한 내력을 後記와 亂稿의 서문으로 남겼다. 이를 剛而가 印刊하여 퇴계에게 보냈던 것이며 퇴계 또한 보고 싶어 하던 차라 기쁘기 한량 없다고 적고 있다.⁷⁵⁾ 이 때에 퇴계 나이 벌써 62세였다. 퇴계는 시를 좋아했고 만년에는 더욱 주자시 보기를 즐겼다는 문인 文峯의 기록으로 보아 더욱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66세 병인년에도 朱詩 간행에 얽힌 사연을 적은 편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관심은 오랜 세월 동안 간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그리고 奇高峯과의 사이에도 퇴계는 주자의 시에 관해 해설한 예가 있으나 다음 기회로 돌린다.⁷⁷⁾

이제 주자시 내용에 관해서 알아 볼 차례다. 퇴계가 朱詩를 「和·次·用韻」한 것에 대해서만 그 제목을 적어 본다.

- 一. 三月病中言志晦菴詩韻(43세)⁷⁸⁾
- 二. 至日有感用晦菴十月朔旦懷先壟韻. 時除禮賓正病不赴是日又廢祠參

72) 朱全, 책9, 文77.

73) 위와 동일, 文75.

74) 王譜, 29~30頁, 丁亥 38세條.

75) 71)번 주와 동일

76) 答柳仁仲 希春, 退全, 책1, 권12 書 330頁 下右, 丙寅 66세條. 「……與李剛而 刊朱詩小簡 一時往復偶爾 皆不足稱說, 不知公何取於是而云云耶? 君子一言以爲智, 一言以爲不智 公之許人如是之不重, 不唯愚者之不敢當, 直恐人之笑議於公也.

77) 答奇明彥 論四端七情 제2書 別紙에 대해 풀이하고 있음. 朱全, 책1, 文5 詩에 있음. 〈宿梅溪胡氏客館觀壁間題詩自警二絕〉

78) 退全, 續, 권1, 癸卯 43세. 「春日言悔」 朱全, 책1, 文1 詩 癸酉 朱子 24세 作에서 차운.

(46세)⁷⁹⁾

- 三. 和西林院詩韻二首. 三月寓月瀾菴(47세)⁸⁰⁾
- 四. 閒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47세)⁸¹⁾
- 五. 遊山書事十二首用雲谷雜詠韻(55세)⁸²⁾
- 六. 浴歸韻(60세)⁸³⁾
- 七. 次韻李靜存見寄(63세)⁸⁴⁾
- 八. 三月三日用晦菴先生一字韻(66세)⁸⁵⁾

위에 든 8種 「和·次·用韻」에 대한 것은 미리 摘出한 글이 있어 참고를 했다.⁸⁶⁾ 한번에 적힌 퇴계의 시는 주자 「春日言懷」에서 운을 빌었다. 퇴계의 言志는 주자의 言懷와 관계가 깊으며, 46세 때의 <至日有感詩>는 주자의 <十月朔旦懷先壟作>에서 次韻했다. 퇴계의 이 시는 마침 나라에서 禮賓正 벼슬이 제수되었을 때 身病으로 조정에 나아가지 못했고 또 시를 짓던 그 날은 사당에 참례도 못했기에 주자의 先壟作을 차운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三의 <和西林院詩韻二首>는 주자의 西林院 여러 시들에서 차운했는데

79) 退全, 別1, 詩, 丙午 46세. 「十月朔旦懷先壟作」에서 用韻.

80) 退全, 文集, 권1, 丁未 47세.

제1수는 「題西林可師達觀軒」 및 「再題」 각각 주자 31세, 33세 時 作에서 화답.

제2수는 주자의 示西林可師 2수 중 제2수에서 和作. 朱全, 文2, 詩.

81) 退全, 文集, 권1, 丁未 47세. 「淳熙甲辰中春精舍閑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55세作, 朱全, 책2, 文9, 시.

82) 退全, 文集, 권2, 乙卯 55세. 「雲谷雜詩十二首」, 주자 丙申 47세 時 作에서 用韻. 퇴계의 12수의 각 제목은 同註 12)에서 밝힌 것과 같음.

83) 退全, 續2, 庚申, 60세. 「曾點」, 朱子 32세 辛巳 作에서 차운. 朱全, 책1, 文2, 詩.

84) 退全, 文3, 詩 癸亥 63세. 「鵝湖寺和陸子壽」, 주자 50세 己亥 2월 陸子壽來訪後作, 朱全, 책1, 文4, 詩. 퇴계는 自註에서 「靜存은 數學에 精通했으며 너무 苦思하여 微恙이 있다」고 했음.

85) 退全, 文4, 丙寅 66세. 「三月三日記事畢因修禳事于靈梵以高閣一長望分韻賦詩得一字」에서 用韻. 朱全, 책1, 文2, 詩.

86) 王甦, 이퇴계적 詩學. 李章佑 譯, 퇴계시학, 退溪學研究院刊, 1981. 4. 30.

이는 주자의 사고변화에 중요한 관건이란 점에서 의의가 큰 시이며, 이 詩韻을 퇴계가 47세에 次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나 깊이 살펴 보지 못한다. 4번의 <權歌10수>의 次韻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역시 47세 때의 작품으로 주자의 시세계에 깊이 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번의 <遊山書事12수>는 주자 47세 때 作인 <雲谷雜詩12수>에서 次했다. 여기서는 주자의 原詩가 특히 그래서이겠지만 5언6구의 시형이 특이하다 하겠고, 또 각 수에 붙인 시제가 주자의 그것과 같다. 퇴계 55세 때의 작품이다. 이 때는 아마 퇴계가 朱子大全을 정독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한다.⁸⁷⁾ 퇴계 56세에 南時甫에게 준 답서에서 晦菴書 7책이 이루어졌다 했고 수 십년 전부터 이 공부를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음을 보고 짐작할 수 있겠다.⁸⁸⁾

다음 60세 作인 <浴歸韻>은 주자 32세작 <曾點>시를 次한 것이다. 주자 31세 仲冬 이전에 「말이 많으면 도를 해치기에 시를 쓰지 않았으나 이틀 동안 大學의 誠意章을 읽고 느낀 바 있어 至日 아침에 일어나 이 시를 써서 스스로를 경계했으니 대개 부득이해서, 쓰지 않고는 못 배겨서 쓴다.⁸⁹⁾」고 했음에서 32세 작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때는 주자가 延平을 세번째 배알하고 학문의 기초가 잡혀던 시기로 흔히 주자의 道通詩라고 하는 <觀書有感>을 쓰던 때이기⁹⁰⁾ 퇴계의 이 詩 차운은 더욱 뜻이 있다 하겠다. 또 이 해는 퇴계가 경영하던 도산서당이 완성되던 때이기도 하다.⁹¹⁾ 서당 완성으로 독서,

87) 이 해에 병으로 三辭解職, 「買舟東歸」하여 家廟에 祭告했음. 退全, 책4, 언행록 권7, 年譜 중 124頁下, 乙卯 先生 55세條.

88) 答南時甫, 丙辰 56세. 「……晦菴書見成七冊, 無窮事業都在其中, 但一味力不能趁, 而光陰不留. 恨不從數十年前做此工夫. 願公以澁爲戒, 毋以一恙故, 中年自廢以貽晚晦也……」, 退全, 책1, 권14 書 362頁 上右. 또, 책4, 年譜 중 병진년 선생 56세 6월條에 「編次朱子書節要成」이라 적었다.

89) 朱全, 책1, 文2, 詩 「頃以多言害道 絕不作詩, 兩日讀大學誠意章有感, 至日之朝起書此以自箴. 蓋不得已而有言云」

90) 朱子從遊延平始末, 錢案, 책3 30~31頁.

91) 退全, 年譜 중 庚辰 60세 11월條 「陶山書堂成」

敎誨의 得意한 날이 시작되려고 했다. 따라서 이듬 해에는 제자를 데리고 「浴·風·詠」의 시간을 보내면서 쓴 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암애에 꽃 피고, 봄은 무르녹았는데,
잔잔한 산골 물, 숲속에 새는 울고,
우연히 동관들과 산을 넘어 온다네,
산 앞의 고반대엔 한가로움이 흐르고.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潤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看考槃,⁹²⁾

그 때 퇴계를 수행했던 李德弘이 3년 뒤인 갑자년 퇴계 64세 때 이 시를 평하여 「상하가 同流하여 만물이 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고 했을 때 퇴계는 답서에서 「그런 뜻이 조금은 있으나 推崇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레 반응을 보였다.⁹³⁾

이로 볼 때 주자의 <曾點>에서 차운한 의미가 깊음을 알만하다. 이는 61세에 쓴 <陶山雜詠并記>⁹⁴⁾에서 「壁立萬仞하여, 늙은 이가 편히 설 곳이 아닌 데다가 산중에 물도 없어 樂山樂水하기에 알맞지 않으므로 淸涼山을 버리고 이 곳을 택했다.」고 했으며, 「그러나 外物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응수한 뒤 그 증거로 「공자가 논어에서 ‘吾與點也’⁹⁵⁾라고 한 감탄이 하필이면 沂水위에서 나왔으며, (朱子)卒歲의 소원이 어찌하여 유독 蘆峯 마루에서 읊조려 졌을까?」⁹⁶⁾라고 썼음을 볼 때 퇴계의 이 분야 관심이

92) 「步自溪上躡山至書堂, 李福弘, 德弘, 琴梯筍輩從之」, 退全, 책1, 권3, 詩 112頁 上左.

93) 答李宏仲, 退全, 책2, 권35 書, 甲子 64세 221頁 上右, 책4, 年譜 중 辛酉 61세 3월 「築節友社」條. 同言行錄, 권3 類編 59頁 및 攷證, 권2, 詩 474頁 上左 등에도 있음.

94) 退全, 책1, 권3, 詩 100~103頁. 이 記文 끝에 「……嘉靖辛酉日南至 山主 老病畸人記」로 되어 있음.

95) 논어, 先進 제11.

96) 朱全, 책1, 文8, 詩 「登蘆峯二首」의 前1수 끝에 「……餘年端可料, 此地欲長休」

얼마나 컸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七번째의 <次韻李靜存見寄>는 퇴계 63세 때 주자의 유명한 <鵝湖寺次陸子壽>시에서 차운한 것이다.⁹⁷⁾ 더군다나 첫 구의 「德義風流夙所欽」은 한 자도 바꾸지 않고 인용하고 있다.

八번째 <三月三日用晦菴先生一字韻>은 퇴계 66세 병인년에 주자의 <三月三日祀事畢因修稌事于靈梵以高閣一長望分韻賦詩得一字>에서 用韻한 것인데 날짜도 3월 3일 그대로라서 인상적이라 할 만하다. 이 외에도 퇴계의 시에는 주자의 시를 模擬, 點化한 것이 많이 있다.⁹⁸⁾

2. 武夷權歌 理解

武夷權歌란 「武夷山の 뱃노래」라는 뜻이다. 주자가 66세 乙卯 中秋에 쓴 武夷圖序를 참고하여 武夷山과 武夷君이란 神에 얽힌 얘기 및 이에 대한 주자의 태도를 알아 보기로 한다.

“武夷君의 이름이 漢나라 때부터 알려지게 되었으며 乾魚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 어떤 神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建寧府 崇安縣 남쪽 20여리에 武夷山이란 산이 있는데 옛부터 전해 오길 神 武夷君이 사는 집이라고 한다. 峯巒과 崑壑이 秀拔·奇偉한데 淸溪 아홉 구비가 그 사이로 흘러 나온다.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두 언덕의 깎아지른 절벽엔 왕왕 枯查가 돌 틈 사이에 꽃혀서 배와 棺槨를 잡아 매고 있다. 널 속에는 遺骸가 있으며 그 밖으로는 陶器들이 있는데 아직도 모두 깨어지지 않았다. 아마 前世에 길이 통하지 않고 냇물도 막혀 트이지 못할 때 夷落民이 살았는데 漢人이 제사 드린 대상이 바로 그 부락민의 君長으로서 역시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였으며 살아서는 무리들이 臣服하여 따랐고 죽어서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 오는 게 아닌가 한다.

지금 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가장 높고 바른 것을 오히려 大王峯이라 하며 半頂에 小丘가 있으니 예가 곧 武夷君이 거처하던 곳인지 모르겠

란 句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가리킨 듯.

97) 退全, 책4, 攷證, 권2, 詩 479頁 上右에서 「案此詩用鵝湖韻」이라 註했음.

98) 同註 86) 王甦 文 참조.

다. 그러나 옛 기록에 전해 오는 것은 詭妄하여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考信할 바 못 된다. 때문에 版圖가 있긴 해도 작고 색이 바래서 알아 보기 어려웠다. 지금 冲羽佑人 高君文學가 다시 고쳐 그렸다. 이 그림은 鄉僧隱顯의 布置가 武夷山의 神秘를 다 나타내었다. 또 (文學가) 隱屏精舍 仁智堂 主人에게 序를 쓰도록 하여 옛부터 전해 오는 의혹을 없애도록 했다.”⁹⁹⁾

주자는 이 서문에서 무이산의 위치와 풍경, 그리고 거기 얽힌 전설을 적은 뒤 옛부터 전해 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무이도가 있긴 하나(꼭이) 좁고 망가져서 九曲의 승경을 알아 보기가 어려웠다. 高文學란 羽人이 새로 그리고 서문 부탁을 하기에 쓴다고 했다. 66세면 주자의 만년이요, 학문이 거의 완성된 원숙한 경지라 하겠기에 이런 전설을 「詭妄不經」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武夷의 산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은 것이다. 주자는 이 서문을 쓰기 12년전 54세 계묘년 夏4월에 武夷9곡 중 제5곡에다가 武夷精舍를 짓고 거쳐하니 四方 四友가 많이 찾아왔다고 했으며 小詩 12편을 지어 그 실상을 기록한다고 했다.¹⁰⁰⁾

그리고 1년 뒤 甲辰에는 다시 諸同遊에게 보여 준 武夷權歌 10수를 지었으니¹⁰¹⁾ 이 10수를 퇴계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나를 살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먼저 주자와 퇴계의 原詩와 和詩를 감상하고 그 사이의 곡절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다. 10수는 맨 앞에 序首, 아래

99) 朱全, 책10, 文76 序, 원문은 안 실음.

100) 朱全, 책2, 文9, 武夷精舍雜詠并序에 「武夷之溪東流凡九曲, 而第五曲爲最深…… 卽精舍之所在也. ……經始於淳熙癸卯之春. 其夏四月既望堂成而始來居之, 四方士友 來者亦甚衆. 莫不嘆其佳勝而恨它屋之未具. 不可以久留也……總之爲賦小詩十有二篇以紀其實……」 또 王譜 癸卯 54세 夏四月條에는 李果齊 方子の 年譜를 인용, 「정월에 착공하여 夏4월에 완공했다」고 되어 있고, 문집을 인용하여 武夷精舍 雜詠并序를 지었다고 적었으며 이어 「武夷權歌十首 甲辰」이라고 기록했다.

101) 朱全, 책2, 文9, 詩 「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同遊相與一笑」 甲辰은 55세 때임.

로 1곡에서 9곡까지 읊고 있다.

무이산 꼭대기에 신령님이 계시고,
 산 아래 찬 물은 구비구비 맑으네.
 이 산 깊숙히서 기절한 곳 찾글터니,
 뱃노래 한가로이 두세 소리 들리네.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 櫂歌閒聽兩三聲.

첫구비 산여울에 낚시 들고 배에 올라,
 맑은 물 어린 경치 만정봉 완연하네.
 무지개다리 끊긴 뒤 소식만 묘연하다.
 바위 솟아 골 깊은데, 뿌연 내만 들렀네.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煙.

둘째 구비 옥녀봉은 저렇게도 정정하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물가에 다소곳이!
 도사는 꿈 속에서 낭만을 버리고는
 푸른 산 흥에 겨워 몇 겹을 들어간고?
 二曲亭亭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道人不復陽臺夢, 興入前山翠幾重

셋째 구비 가학선 바위도 높을시고,
 돛대를 내린 지 그 몇 해를 지냈던고?
 푸른 바다 뿔말 되니 그 이치 알만한데,
 부질 없는 세상 닷 가엽기 그지 없네.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넷째 구비 동서로, 마주 보는 저 바위야!
 바위틈 꽃 얼굴엔 아침 이슬 영롱하네!
 선계 한 번 울고 난 뒤 사람 하나 안 보이고,

밝은 달은 골짜기에, 맑은 물은 연못 가득!
 四曲東西兩石巖, 巖花垂露碧監飜,
 金鷄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다섯 구비 높은 산엔 구름만 머물고,
 하루 종일 숲 속에 뿌연 안개 자욱한데,
 그 숲 속 그 나그네, 이는 이 그 누굴꼬?
 여기여차 뱃노래에 영원을 되새기네.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烟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여섯 구비 창병 바위 푸른 개울 둘러 흘러,
 하루해가 다하도록 사립짜만 외로우네.
 손님 위해 노를 저어 떨어 지는 꽃을 봐도,
 여원 납과 산새 소리에 봄 뜻이 한가롭네.
 六曲蒼屏遶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巖花落, 猿鳥不驚春意閒.

일곱 구비 노를 저어 푸른 개울 거스르며,
 은병정사 선장봉을 아쉬워 돌아보네.
 어젯 밤 봉우리에 빗 소리 요란터니,
 쏟아 지는 물줄기 오싹하기 몇 번인고?
 七曲移船上碧灘, 隱屏仙掌更四看,
 却憐昨夜峯頭雨, 添得飛泉幾道寒.

여덟 구비 쌓인 안개 바야흐로 걷히는데,
 고루암 바위 아래 물길이 굽이치네.
 이 구비 볼 것 없다, 말하지 말아주게.
 사람들 아니 오곤 그만 감이 좋다하네.
 八曲風烟勢欲開, 鼓樓巖下水縈廻,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아홉 구비 끝나는 곳 앞들이 확 트여,
 이슬 젖은 뽕과 삼이 들판에 가득하네.

어부들 다시금 도원경을 그러서,
 별 세상 있는 듯이 찾아 나섰네!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¹⁰²⁾

이어 퇴계의 차운시 10수를 보자.

신령스런 산이라서 놀라는 게 아니라,
 창주정사 맑은 자취 곰곰히 그려보네.
 어젯 밤 꾸 꿈에 朱선생 본 감격 살려,
 무이구곡 운을 빌어 다시금 노래하네.
 不是仙山詫異靈, 滄洲遊跡想餘清.
 故能感激前宵夢, 一櫂賡歌九曲聲.

첫째 구비 발을 디더 어선을 찾으니,
 천주봉은 예대로 흐르는 내 굽어 보네.
 참 선비 이 곳에서 경치를 음상한 뒤
 동정은 다시금 풍연 속에 잠겼네.
 我從一曲覓漁船, 天柱依然瞰逝川.
 一自眞儒吟賞後, 同亭無復管風烟.

둘째 구비 푸른 봉은 선아의 화신인가?
 타고난 아릿다움 절세의 단장 견해,
 무엇하러 다시금 임에게 바치려나?
 하늘은 멀어서 겹겹이 구름 깊은데.
 二曲仙娥化碧峯, 天妍絕世靚脩容,
 不應更覲傾城薦, 閭闔雲深一萬重

셋째 구비 높은 절벽 큰 배를 매었구나!
 허공중을 날으는데, 이 배가 괴이하네.
 냇물을 건너는데 그 무엇에 쓰려고

102) 101)번 주와 동일

오랜 세월 부질 없이 간직해 두었는지?
 三曲懸崖插巨船, 空飛須此怪當年,
 濟川畢竟如何用, 萬劫空煩鬼護憐

넷째 구비 선기암엔 밤 깊어 고요한데,
 고운 깃털 황금 닭이 새벽을 알려주네.
 이 가운데 또 다시 풍류가 넘쳐 흘러
 양털 옷 걸친 채 달빛 아래 연못 낚시.
 四曲仙幾靜夜巖, 金鷄唱曉羽毛毳.
 此間更有風流在, 披得羊裘釣月潭.

다섯 구비 대은병은, 朱子 계신 무이 정사,
 대은도 오히려 숲 속에 숨은 건가?
 거문고를 잡고서 달빛 아래 통길 적에,
 산 앞의 발갈이들, 선생 마음 어이 알까?
 當年五曲入山深, 大隱還須隱蔽林,
 擬把瑤琴彈夜月, 山前荷篋肯知心.

여섯 구비 돌아 돌아 벽옥 같이 푸른 물결,
 신령 자취 어이하여 구름에 갇혔을까?
 낙화 뜬 물결 따라, 깊이 깊이 찾아 오니
 이제사 선가에 한가로움 알겠구나!
 六曲回還碧玉灣, 靈蹤何許但雲關,
 落花流水來深處, 始學仙家日月閒

일곱 구비 노를 저어 또 한 여울 올라오니,
 천호암 기이한 모습, 가장 볼 만 하구려!
 어찌면 유하주를 다시금 얻어와서
 지나히 비선 따라 학의 등에 올라탈꼬?
 七曲撐篙又一灘, 天壺奇勝最堪看,
 何當喚取流霞酌, 醉挾飛仙鶴背寒.

여덟 구비 운병은 물을 끼고 열리니

나는 듯 노를 저어 멋대로 맴돌아,
 고루암 만들어 놓은 천공의 뜻 알겠구나!
 遊人을 고무하여 끝까지 오게 하네!
 八曲雲屏護水開, 飄然一棹任旋洄,
 樓巖可識天公意, 鼓得遊人究竟來.

아홉 구비 산 터지니 드넓기만 하구나!
 인가에서 연기 펼 제, 긴 내를 굽어 보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예서 놀이 끝난다 말게.
 묘처 필히 다른 곳에 또 있을 것이네.
 九曲山開只曠然, 人烟墟落俯長川,
 勸君莫道斯遊極, 妙處猶須別一天.¹⁰³⁾

주자가 55세에 쓴 詩韻을 퇴계는 47세에 비로소 지었다. 權歌 간행에 대한 내용은 앞 장에서 대강 언급했기에 이 장에서는 權歌에 대한 퇴계의 의견을 찾아 내어 살피고자 한다. 퇴계가 55세 을묘년 李剛而에게 보낸 답서에서 말했다.

“현재 南中에 또 심한 흉년이 들었고 島醜가 내년에 다시 귀찮게 굴 것 같다고 하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¹⁰⁴⁾ 멀리까지 기억하시고 權歌註를 刊印하여 一本을 보내 주심에 진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지극히 감사합니다. 懼齋가 이 註를 만들었음을 볼 때¹⁰⁵⁾ 비록 선생(朱子)의 본의를 정확하게 터득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자의) 취지를 계발하는

103) 「閒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退全, 책1, 권1, 詩 63-64頁 丁未 47세作

104) 島醜란 倭寇를 말하는 것 같다. 湖南 方伯이 龜巖에게 13읍의 兵力을 거르리고 倭寇 격퇴를 원조하는 명을 내렸음을 볼 때 將材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乙卯夏 倭虜寇湖南 陷城殺守歲甚陸梁, 方伯以先生爲都將, 領十三邑兵往援之. 先生 整軍啓行 紀律嚴明, 行伍整齊, 望之不可犯. 中道聞寇退乃返. 於是人始知先生 兼有將材焉……」 龜巖集 原集, 권2, 年譜 44세條.

105) 懼齋는 元의 학자 陳普. 주자의 權歌가 단순히 山水만 읊은 게 아니고 進道次第의 寓意가 있다고 생각하여 註를 썼다고 한다. 「案元懼齋陳氏普謂武夷權歌九曲寓意. 純是一條進道次第 其意固不苟, 不但爲武夷山水也. 遂作註解」. 退全, 책4, 攷證 권4書 518頁 上左. 宋元學安 64권, 臺灣, 中華書局印行.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실로 없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目前第以南中又至大歎。似聞島醜來年將復作逆云，是爲痛念爾。蒙寄示
 權歌註刊印一本，遠記至此 珍重玩誦，極爲感荷。懼齋爲此註 雖未知正得
 先生本義，亦可以助發趣旨，誠不可無也。¹⁰⁶⁾

이 편지에는 위에 인용한 사연 말고도 농암(李賢輔)의 捐館으로 溪山의 즐거움이 쓸쓸해졌다고도 했으며, 한편 곡식이 그렇게 흉년이 들어 불행이라고도 했음을 볼 때 퇴계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겠으나 이 글과 직접 연관이 적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퇴계의 왕복서 속에서 주자의 武夷權歌에 대한 평가는 이 편지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퇴계의 이런 견해는 權歌의 작자인 주자의 본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기에 의의가 크다. 더욱 元의 학자 陳普의 견해를 완곡하게 부정하고 있어 검토할 값어치가 있다고 본다.

또 懼齋의 견해를 부정하기는 하면서도 權歌를 읽을 사람에게겐 주자의 본의가 어떻든 간에 進道の 次第로 풀이해 줌으로써 독자가 學問進道에 대한 취지를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현대비평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助發趣旨」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다른 견해에도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라고 보며 주자의 「思無邪」에 대한 견해와도 닮아서 흥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⁰⁷⁾ 이런 원만한 태도는 그대로 퇴계에게 연결되었다고 본다. 이 때가 퇴계 55세였으니까 次韻했을 때 보다 8년 뒤의 일이다. 47세에 차운했던 제9곡

106) 答李剛而，退全，책1, 권21 書 제3書, 乙卯 55세, 512頁 上左-下右.

107) 논어, 爲政, 제2.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의 朱子註.

朱子語類, 권23, 논어 5, 爲政上, 「詩三百章」 朱子は 詩經의 시를 지은 사람들의 心思(情性)가 모두 「無邪」한 것이 아니라 詩經을 읽는 사람들이 詩의 善處를 읽고 善心을 感發하고 詩의 惡處를 보고는 逸志를 懲罰하면 讀詩者의 心思가 無邪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시인의 본의를 알고자 하는 「知詩」와 시를 읽는 사람이 시에서 얻고자 하는 「用詩」를 아울러 관심하고 있어 퇴계의 태도와 닮은 것이라고 본다.

시에 대해 회의를 품고 탐색을 거듭하다가 새로이 고쳐 짓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奇高峯에게 묻기도 했다. 미리 말한다면 퇴계가 보는 주자의 본의는 「경치를 읊은 시」라는 것이다.

퇴계 61세¹⁰⁸⁾ 때 기고봉에게 답한 「四端七情」을 논한 第二書 別紙 맨 끝에 權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옮겨 본다.

“濕 제가 한가로울 때 武夷志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이 武夷權歌和作을 많이 남겼으나 선생(朱子)의 의도를 깊이 터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일찍이 別概所刊行 權歌詩註에선 九曲詩首尾를 學問入道の 次第로 여기고 있는데 아마도 선생의 본의가 이렇게까지 拘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近間에 茂長 卞成溫이란 사람이 일찍이 金河西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멀리서 와서 서로 만났더니, 河西가 지은 武夷律詩一篇을 보여 주는데 註意를 그대로 사용했더군요. 공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權歌에

108) 위의 제2書 別紙는 연대가 문집 권16의 배열로 봐서 모두 己未년에 해당하는 퇴계 59세 때이다. 제1書도 여기 들어 있으나 年譜에는 60세 庚申年 11월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봐서 제2書는 아마 61세 辛酉년이 아닌가 하지만 또 退全, 책1, 권17 書 처음에 「答寄明彦 辛酉」로 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위의 제2書 別紙 끝 權歌를 논한 내용 중에 「近有茂長 卞成溫 嘗學於金河西云 遠來相見 示河西所作武夷律詩一篇 亦全用註意……」라는 말이 있다. 이로 봐서 卞成溫이 퇴계를 보고 간 뒤에 高峯에게 답한 편지임에 틀림없다. 卞은 언제 퇴계를 보고 갔던가? 退全, 책1, 권2, 시 114頁 下左에 「湖南卞成溫秀才字汝潤來訪留數日而去贈別五絶」이란 시가 있고, 이 시는 辛酉年條에 들어 있다. 이 5絶에 보면 「重逢……六霜」가 있어 6년 전에 한 번 相見했던 것이며, 제2絶에 「河西蓬館舊同遊, 欸去修文白玉樓, 今日逢君門下士, 話君終夕涕橫流 河西金厚之 汝潤嘗從遊 厚之今年下世」라고 했다. 小註의 「厚之今年下世」로 보아 河西의 下世年이 퇴계 60세 庚申 정월인데 辛酉年條에 5絶을 排列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辛酉年條에 들어 있는 시 「步自溪上 踰山至書堂 李福弘, 德弘, 琴梯筍輩從之」라는 시가 年譜에 61세 辛酉 3월 築節友社條에 들어 있어 詩集 辛酉年과 맞는 것을 봐도 퇴계집에 시 배열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으니, 卞成溫에게 준 5絶도 61세 때가 틀림 없으나 다만 5絶 第2首 小註의 「厚之今年下世」는 이상한 것 같다. 「今年」은 庚申年 퇴계 60세이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和答을 했습니다. 지극히 외람스런 것이긴 하나 左右께 숨길 수 없어 이제 적어 보내니 訂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9곡을 和作한 것이 2절인데 하나는 註意를 따른 것으로 옛 날에 지은 것입니다. 그 뒤 (朱子原詩 중의) 「다시 찾는다(更覓), 이것 말고(除是)」 등의 語意를 되풀이 생각해 보니 註意와는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또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이 두가지 뜻(義)을 써서 和作한 二絶 가운데서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 지 잘 모르겠군요. 대개 九曲은 곧 맨 끝까지 유람했으나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는 없다는 것이지만 만약 勝境이 없다는 이유로 유람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흥취와 의미가 모두 없어져서 지금까지 거치면서 보았던 기이한 풍경이 모두 헛탕이 되고 말기에 末句에서 그렇게 읊었던 것입니다.

뜻이 만일에 遊人이 모름지기 漁人처럼 桃源境을 찾아 들어 가도록 권한다면 응당 世外別乾坤의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후의 경계를 찾은 게 되어서 지금 본 경치 그 자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미 나의 재능을 다 써 버린 뒤에 선 모습이 우뚝하다」는 경지요, 동시에 「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곳(九曲)과 八曲에서 읊은 「이 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고 하지 말라. 예서부터 遊인들이 올라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학문에 들어가는 경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註家が 八曲에서 「이미 下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벌써 九曲詩로써 (학문의) 깊고 얕은 차례라고 해 놓고 八曲에 와서야 비로소 「이미 下學에 가깝다」고 한다면 (八曲) 이전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九曲註에 「성현의 경지에 넉넉히 들어 갔지만 처음부터 백성이 일상 늘 사용하는 것 아님이 없다. 대저 사람을 버리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서 그 어떤 高遠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註解의) 이 말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로대 「다시 찾는다. 이것 말고(更覓, 除是)」 등의 말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만약에 「漁郎이 다시 찾는다」는 구절 아래의 내용을 「우리 학문(유학)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고 索隱行怪하는 무리들은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저네들(索隱行怪之徒)을 비난하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것일 따름이라고 볼 수 있어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本註에서 「이 경치는 인간에서는 흔하게 얻을 수는 없다」고 한 말 또한 사리에 어긋납니다. 어리석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으니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¹⁰⁹⁾
위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1. 武夷志의 諸人和作이나 別概所刊行 權歌詩註 및 金河西의 것은 모두 주자의 본의를 구구하게 만들고 있어서,
2. 감히 註意에 의한 시를 지었다가 개작했다. 그러나 자신이 안 서서 奇明彦에게 물었다.

여기서 注意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없음이 유감이나 《雅誦》에 있는 注意를 살펴서 짐작해 보기로 한다.

首. 道の 전체를 말함.

1. 孔·孟子 가고 난 뒤 道統이 오래 끊어졌음을 말함.
2. 道를 배움은 色을 멀리함으로부터 시작함. 사람이 이 (好色의) 마음을 끊은 뒤에 道에 들어갈 수 있음.
3. 사람이 世間の 모든 榮辱(에 대한 마음)을 씻어 내어 가슴 속에 남기지 않은 뒤에야 俗累가 끊겨서 힘차게 道에 들 수 있다. 佛家의 (인생이) 물거품이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부질없는 것이란 말이 正道는 아니지만 利慾에 끌리는 마음을 씻는 데 (조금의) 도움은 된다.
4. (道에) 힘차게 달려 가서 얻는 게 있으니, (성인의) 높은 경지를 우러러 보고 단단한 경지를 뚫어 본다.
5. 만고에 변함 없는 성현의 심사를 알게 된다.
6. 靜하고 安할 수 있어 生意가 자유자재로 발동하며, 천지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을 기를 수 있다.
7. 上達의 경지가 한 번도 下學의 바탕에서 떠나지 않는다.
8. 노력 안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지 노력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 것이 없다.
9. 넓게 트여서 막힘이 없는 경지를 말함.

首. 言道之全體.

109) 答奇明彦 論四端七情 제2書 別紙. 退全, 책1, 권16 書 426頁 上左-427頁 上右. 원문 길이 안 실음.

1. 言孔孟去後, 道統久絶.
2. 言學道由遠色而入, 人能屏絶此心 然後可以入道.
3. 人於世間一切榮辱, 皆能蕩滌, 不以介其胸中 然後俗累皆絶, 沛然入道. 佛家泡沫風燈之說, 雖非正道, 亦可以滌人利慾之心.
4. 言駸駸有得 仰高鑽堅.
5. 言識得萬古聖賢心事.
6. 言能靜能安, 生意流行, 天地可位, 萬物可育.
7. 言上達未嘗離乎下學.
8. 言人患不用力, 一日用力 無不能至者.
9. 言豁然貫通, 無所障礙.¹¹⁰⁾

하나 같이 學問入道の 次第로 풀이하고 있어 陳註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라 퇴계가 지은 것이 「舊所作」이다. 살펴 보기로 하자.

아흠 구비 찾았을 때 문득 아득하여라.
 참된 근원 어디엔가, 이 냇물이 그곳이지.
 비 내리고 이슬 젖은 상마밭을 버리고서
 다시금 산 속에서 또 한 경치 찾을건가?
 九曲來時各惘然, 眞源何許只斯川,
 寧須雨露桑麻外, 更問山中一綿天.¹¹¹⁾

아직 武夷志와 權歌詩注를 읽지 못해 자신이 없으나 위의 시를 注意에 따라 지었다는 퇴계의 말로 그 注意가 무엇인가를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다. 곧 「眞源이 바로 이 냇물이 아닌가? 桑麻外에 一綿天을 꼭 찾아야 할건가?」 한 것이라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인간세상 말고 별천지를 찾지 않게 되어 「人生日用之常」을 중시하는 儒家와 가깝게 되고

110) 雅誦, 2책, 8권, 조선 正祖가 23년(1799) 주자의 시문을 뽑아 편집한 책. 武夷權歌 10수에 붙인 註解임.

111) 答金成甫條, 「初一絶云云」註. 退全, 책4, 攷證, 권4 書 518頁 上左, 癸亥 63세.

「索隱行怪之徒」의 玄虛한 詭妄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九曲이 究竟處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更覓·除是」 등의 시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어郎이 다시 도원로를 찾으니
人間世上 말고 別天地가 또 있구나!

라고 풀이한 게 아닐까 한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엮혔던 것 같다. 漁郎이 도가에서 말하는 별천지인 도원경을 찾아 가듯이, 遊人에게도 그 곳을 찾도록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게 퇴계의 해석이 아닐까?

요약 정리하던 것을 계속 풀이해 보자.

3. 九曲이 평범하여 유람이 끝났다고 하면 一曲에서 八曲까지 본 것이 헛 것이 되어, 遊人에게 漁郎처럼 별천지를 찾아 究竟處로 삼도록 하는 것은 논어에서 안희가 공자의 위대함을 흠모하여 재주껏 다 하고 나니 우뚝한 그 무엇이 선듯한 것을 느끼는 경지, 또 불가의 百尺竿頭에서 進一步하는 경지에다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十方世界가 바로 全身」인 경지. 이런 두 경지가 별천지에 비길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라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이곳(九曲)과 八曲의 「莫言此地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와 합쳐서 學問造詣處로 봐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퇴계의 조건부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
4. 그러나 註家が 八曲에서 下學에 접근했다고 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九曲에서 深淺次第를 따지는데 八曲에서 비로소 下學이라면 一曲 ~ 七曲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5. 또 九曲註에서 「성현의 경지에 넉넉히 들어 갔으니 高遠難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말 자체는 매우 아름다우나 「다시 찾는다, 이것 말고」 등과 어긋난다.
6. 漁郎이 다시 별천지를 찾는 행위는 吾學(儒學, 聖學, 道學)에서 할

일이 아니고 索隱行怪之徒나 하는 일이라 한다면 근사할 것 같으나 本註에 이런 경치를 속세에선 잘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 역시 전후 모순된다.

라고 하여 해석상의 고충을 말했다.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本意는 景物을 노래한 것이지만(작자편에서 보면), 독자편에서 볼 때는 좀 구구하더라도 功用을 십분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助發趣旨」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를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원만한 마음에서 나온 태도라고 본다. 현대 비평에서 말하는 「오류」이론에 비추어 볼 때 작자의 의도를 미리 따지는 게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 퇴계의 본의를 따지는 행위가 우스운 것 같으나 이 점이 바로 도학가의 비평 태도라고 보아 무방할 것 같다. 「作詩, 知詩, 用詩」 세 가지 방면을 고루 관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理一分殊」에서 「分殊」를 중시하는 태도는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퇴계의 訂評 요구에 奇明彦이 답한 別紙가 있으나 여기서는 퇴계가 63세 癸亥年에 金成甫에게 답한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權歌九曲一絕四句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의 처음 견해가 註意와 같았기에 처음 一絕에서 그렇게 읊었습니다.¹¹²⁾ 그 뒤 1절을 이렇게 고쳐 지은 것은 일부러 새로운 의미를 파내어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시의 의미와 「除是·別有」 네 글자를 반복하여 상세히 읊미한 뒤 당연히 이와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처음에는 역시 꼭 맞는 해석이라고 감히 자신할 수 없어 일찍이 奇君 明彦에게 보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明彦 역시 後一絕을 옳다고 하지 않더군요! 생각컨대 그의 뜻이 正히 보내 주신 뜻과 같았습니다. 가르쳐 주신 本註의 意味가 실로 이와 같으나 다만 그와 같이 본다면 「平川을 덮었다」는 句 이상(곧 朱子の 第九曲詩 前二句인 「九曲將窮豁豁然, 桑麻雨露霽平川」이상)은 「내가 무궁한 맛을自得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아래 2句인 「漁郎이 다시 桃

112) 111)번 주와 동일

源別有天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前後四句를 합친 1수 전체의 의미를 「내가 自得한 경지」로 본다면 오히려 「仙路를 다시 찾는데 인간을 제외하고 별천지가 있다」는 말이 있게 되니 부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만일 이 2句(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를 「異端老佛의 무리들이 일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가까운 곳(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을 미워한 나머지 공허하고 아득한 곳에서 道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말에는 마땅히 꾸짖고 나무라서 물리치려는 의도가 들어 있을 것이요, 이처럼 한 가닥 好事로 여겨서 그리워하고 숭상하며 부러워하고 아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聯珠詩格 속에는 이 시의 末句 아래에 註를 달았는데 「선생께서 일찍이 이 句 때문에 비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지는 달리 알아 볼 방법이 없습니다만 정말 있었다면 윗쪽 兩端의 의미로 헤아려 보건대, 두 경우가 다 비방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상단의 의미(自得處로 보는 견해)로 살펴 보더라도 이른바 「別有天」이란 것도 「桑麻雨露」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 傲物輕世하는 의미가 없으니 무슨 비방을 듣겠습니까?

또 하단의 의미(異端老佛之徒의 行爲)로 본다면 別有天이란 말은 곧 異端者流를 가리키는 것이니 선생에게 해당 되는 게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비방을 들을 것입니까? 무릇 九曲十絶은 처음(주자가 읊던 당시)에는 결코 「學問次第」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註를 단 사람이 천착부회하고 마디마디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이니, 선생의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찍이 그(註者의) 잘못을 변명했을 때 奇明彦도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第九曲詩에 있어서만은 제가 뒤에 고쳐 지은 견해와 달랐습니다. 무언고 하니 대개 八曲의 「自是遊人不上來」 1句 및 이 1絶(九曲)은 본디 경치를 묘사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는 托興寓意한 곳이 없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明彦 같이 충분한 식별 능력을 가지고도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사람들의 견해에 흔들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제 뜻엔 선생의 이 1絶(제9곡)은 본래 景物 묘사를 위해 설정한 것일 뿐 九曲 一境은 산이 끝나고 내가 절편히 흐를 뿐이기에 예부터 이 곳엔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가 없어서 거의 遊興이 갑자기 끝나는 곳이기엔 시의 앞 2句에선 본 것을 直叙했으며 末二句의 의미는 「만일이 境界까지 와서 경치 좋은 곳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眞源

妙處를 구해서 도착한다면 범상한 인간세상을 벗어나서 별도의 好乾坤이 있게 된다.」고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諸賢의 和詩를 보니까 이런 의미로 和作한 것이 역시 많습니다.

方岳, 張憲, 顧應祥 같은 사람들의 和作 모두가 「경치가 다한 곳」이기에 별도로 하나의 仙境을 찾아서 究竟處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의 처음 의도(十首를 지을 때의)는 다만 이와 같았을 따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독자들이 (朱子の 權歌詩를) 諷詠玩味하는 중에서 超遠한 의사와 함축된 무궁한 뜻(義)을 여분으로 얻는다면 역시 道에 나아가는 사람의 정도가 깊고 알고 높고 낮음과, 누르기도 하고 떠밀어 올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進道의 방법의) 의미로도 옮겨서(移)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子貢이 「아침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¹¹³⁾는 생각이나 曾子의 「일에 따라 정밀히 살펴서 힘써 실행한다」¹¹⁴⁾는 것과 顏子가 「博約工夫에 종사하여서 그만 두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¹¹⁵⁾에 모두가 「시야가 넓게 트이며 질편한 냇물이 보인다(眼豁平川)」는 것으로써 더 올라갈 수 없는 종점으로 생각하다가, (孔子의) 「가난하면서도 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고, 가멸하면서도 예절지키기를 좋아하는 경지」¹¹⁶⁾ (가 더 좋다는 가르침을)를 듣고, 「一貫之道의 宗旨¹¹⁷⁾를 들은 것」 및 「선 모습이 우뚝한 것」¹¹⁸⁾을 보는 것은 모두가 別有天에 도달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마땅히 古人이 (시경의) 시를 인용할 때 (어느 특정한) 한 장을 끊어서 필요한 의의를 취하는 예와 같이 생각하고서 이 처럼(子貢, 曾子, 顏淵.) 보는 것이지만 시의 본의는 이런 것을 말하고

113) 논어, 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114) 논어, 里仁,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一註 …… 曾子於其用處蓋已隨事精察 而力行之……. 一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15) 논어, 子罕, 「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 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既竭吾才 如有所立 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116) 113)번 주와 동일.

117) 114)번 주와 동일.

118) 115)번 주와 동일.

있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물으신 바 「선 것이 우뚝한 것 같다」고 한 말은 자명한 것입니다.¹¹⁹⁾

위 답서는 金成甫가 「所立卓爾」와 관련하여 權歌九曲을 해석하려 한 데 대한 퇴계의 변명이다. 곧 古人이 引詩할 때 斷章取義할 수는 있으나 그 인용된 詩全體의 本意는 단장취의했을 때의 「義」와는 다른 것이 마치 주자의 權歌十首를 景物描寫로 보지 않고 學問入道次第로 보려는 태도와 같음을 강조한 것이다. 위 번역문을 간추려 본다.

1. 改作한 것은 「新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朱子詩의 본의를 따르다가 보니 부득이 했다. 그러나 奇君도 동의하지 않았다.
2. 本註의 의미를 강조한 金成甫의 견해를 따른다면 주자의 第九曲詩 前二句를 「吾所自得無窮之趣」로 볼 때와 4句 전체를 그렇게 봐줄 경우에도 「更覓·除是」란 말이 또한 걸린다. 末2句를 이단의 세계로 보려 해도 주자가 흠모하는 의미를 시에 넣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聯珠詩格에는 이 시 末二句 아래에 註를 달았는데 이 句로 주자가 세상의 비난을 들었다 하나, 吾儒관점이나 異端관점 어느 것으로 봐도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4. 九曲十絶은 본디 學問次第의사가 없었는데 註家들이 疇答부회하여 本意를 왜곡시켰다. 박식한 奇明彦마저도 註家에게 이끌렸다. 본래 朱子 本意는 「景物을 노래한 것」으로 九曲까지 와 보니 너무 허망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 다른 또 한 곳을 보았으면 하는 뜻을 노래한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의미로 和作을 많이 했다.
5. 그러나 독자들은 여분으로 도학에 들어가는 문 째므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斷章取義의 例로 볼 것이다. 그러나 주자의 본의를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다 해도 독자로서는 훌륭한 공부가 되니 무방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퇴계를 주로 하여 河西, 高峯이 보는 朱子 權歌詩의 본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았다. 퇴계는 주자의 본의가

119) 答金成甫 德鵬, 癸亥 63세. 退全, 책1, 권13 書 346夏 上右-348夏 上右, 文多不錄.

「本只爲景物而設」이라고 하면서도 「助發趣旨」의 여분의 효과도 認可하고 있다. 전자는 작자 作詩時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요, 후자는 독자 讀詩時의 功用을 평가한 것이다.

곧 독자의 讀詩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니 주자의 思無邪 풀이와 비슷하다. 이는 孔孟程朱의 학문이 中原에서마져 끊어졌다고 보는 퇴계이기에¹²⁰⁾, 元의 陳普의 注意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한다. 퇴계에 따르면 河西는 「全用注意」했고 高峯은 「不能不爲牽合之說所動而然」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자의 본의와는 멀다고 보는 것이다. 47세에 和作하고 55세에 李剛而에게 讀詩者의 입장에서 陳註의 가치도 인정했던 것이다. 61세 때 卞成濫이 가지고 온 河西의 「武夷律詩一篇」을 얻어 보고 자기가 이전에 지은 第九曲詩 和作二絶을 高峯에 취사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63세 때는 더욱 詩句의 一字一語까지 세심히 관찰하면서 朱詩의 본의를 밝히고자 했다¹²¹⁾ 그 뒤 武夷圖에 대한 관심까지 합치면 장장 20여년의 오랜 동안이다.

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武夷圖를 통해서 퇴계가 주자의 武夷山 풍류에 관해 어떻게 관심했던가를 살피기로 한다. 이 관심은 李仲久¹²²⁾와 왕복한 서신에서 볼 수 있다. 퇴계 64세 갑자년에 李仲久에 보낸 편지에 보면 仲久가 퇴계에게 武夷圖의 題跋을 써 달라고 부탁한 데 대하여 좀 더 두고 보자고 했다.

“年前에 주신 편지 받고도 오래도록 답을 못했습니다. 새해 새봄 元旦에 경사 있으시길 빕니다. ……武夷圖는 精備하여 즐길 만하지만 題跋

120) 拙稿, 이퇴계문학비평小攷.

121) 퇴계는 붓글씨를 쓸 때나 絶句詩 한 수를 지을 때도 늘 주자의 규범을 따랐다. 「先生寫字作詩亦遵晦菴規範. 雖偶書一字莫不整頓點劃, 故字體方正端重. 雖偶吟一節, 一句一字必精思更定 不輕示人(良錄).」 退全, 책4, 언행록 103頁 上左.

122) 이름은 湛, 字가 仲久, 號는 靜存. 龍仁人. 居京 正德 庚午(1510)生. 退全, 책4, 陶山及門諸賢錄 卷之一 319頁 上左.

은 쓰지 못했으니 아직 후일을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역시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바」를 어기는 일인데 공께선 어찌 회피함도 없이 다시 권합니까?……”

年前得惠書，久矣未報。獻歲發春，神相履端之慶，遙深嚮風萬萬。……武夷圖精備可玩，尚未題跋，姑留俟後。但如此事亦犯韜晦之戒，公何不避而更勸人耶?¹²³⁾

라고 하여 李仲久의 요청을 미루는 사연인 것이다. 위 답서 바로 아래에 실린 「答李仲久」에는 權歌는 매 곡마다 부탁대로 썼으나 跋語는 아직 쓰기를 망설이고 있는 내용이며, 퇴계가 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을 崔子粹로부터 듣고 李仲久가 다시 좋게 그려 보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前월 중에 兒子가 서울서 돌아올 때 정월 25일자 편지와 別紙에서 물으신 것을 받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即日 봄이 늦었으나, 남은 추위 오히려 차갑군요. ……武夷圖는 가르침대로 權歌를 매 곡마다 써 놓았습니다만 跋語는 너무 어지럽혀 부탁의 뜻을 거둬 버릴까 두렵습니다. 또 저의 보잘 것 없는 뜻을 (그림에) 부치게 된 것을 다행스레 여겨서 거절할 줄 몰랐으니 어리미친 저의 소행이 매우 가소롭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跋文 때문에 (이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끝내는 이름 난 곳의 절묘한 자취를 책고리 속에 갈무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될까도 두렵습니다. 崔子粹에 의해 제가 이 그림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畫工에게 시켜 별도로 一本을 모사하여(배껴서) 서로 나누어 보자고 하신 배려에 대해서는 다행한 마음 무어라 말씀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일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이루어 질는지요?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두터운 호의 어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前月中 兒子回自京 得接正月二五日 辱惠報緘兼別紙所詢，三復懼然 ……即日春晚餘寒尙峭……武夷圖依所教書權歌於每曲，而跋語深恐厚瀆，重違謬囑，且以寓見微意爲幸，冒不知避，可笑狂癡之甚也。又恐因此跋有難以

123) 答李仲久，甲子 64세，退全，책1, 권11 書 303頁 上右.

示人者, 則遂使名區妙跡 沈晦於篋藏而世不得見也. 至因崔子粹報白知滉
愛賞此畫, 許欲倩工別摹一本以相投寄. 此出於料外萬萬之幸也. 第未知此
事果可易就如所喻否?, 果爾則厚意何可勝耶?.....124)

윗 글에서 「春晚」이란 말로 보아 늦봄에 보낸 답서임이 분명하다. 그
렇다면 跋文에는 「嘉靖甲子二月初吉」로 적었으니 위의 편지 보내기 전
에 跋文을 쓴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퇴계의 이런 생활은 京鄕各地에
곧장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跋文을 읽어 보자.

“三十六洞天¹²⁵⁾이 없다면 그만이었으나 있다면 武夷가 의당 제일이기
에 그 가운데는 옛날에 靈異한 자취가 많다. 하늘이 우리 주자를 태어
나게 하고도 이 세상에 뜻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하여 끝내 景濂포부를
거두어 들이고는 大隱屏 아래에 물러나 살면서 靈仙窟宅을 鄒魯道義之
鄕으로 변화시켰으니 하늘의 뜻은 실로 알 수 없음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한 때의 불행이지만 어찌 이 山(武夷)의 행복이 아니겠
으며 百世 斯文의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세상에는 전해 오는 武夷圖가
많다. 내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數本을 구하여 名畫工에게 시켜서 베
껴 왔었다. 그러나 元本이 疎略하여 傳寫한 것도 未盡하더니, 吾友 李
君仲久가 근래에 一本을 부쳐 주었다. 雲烟이 滿目하고 精妙한 筆致가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 귓전에는 權歌 소리가 황홀히 들리는 듯하다.
아쉽기는 나와 나의 벗이 그 때(朱子當時)에 태어나서 幔亭峯 아래에서
배를 사 가지고 石門塢 앞에 노를 멈추고는 仁智堂에 올라 날마다 (朱
선생을) 모시고 講道를 듣는 여가에 물러 나와 여러 門人들과 더불어
隱求齋, 觀善齋 사이를 오가며 노래하고 시 읊고자 하는 뜻을 만에 하
나도 이루지 못했음이다. 李君이 나에게 매 곡 위에 權歌를 써 달라기
에 써 주고 난 뒤 卷末에 느낌을 적어 들려 보낸다. 嘉靖 甲子 二 月 初
吉에 眞城 李滉은 삼가 跋한다.

三十六洞天無則已, 有則武夷當爲之第一, 故其中古多靈異之跡. 天生我朱
子 不得有爲於天下. 卒至卷懷棲遯於大隱屏下, 使夫靈仙窟宅之 地變而爲

124) 同註 123) 下.

125) 武夷山은 第十六洞天에 속하는데 이름은 「昇眞玄化之天」임. 退全, 책4, 攷證
권 7 跋 582頁 上.

鄒魯道義之鄉，天意固有所未可知也。而彼一時天下之不幸，豈不爲茲山之幸也耶？又豈不爲百世斯文之大幸也耶？世傳武夷圖多矣。余昔在京師，求得數本，倩名畫摹來。由其元本踈略傳亦未盡。吾友李君仲久近寄一本來。滿目雲煙，精妙曲盡，耳邊況若聞權歌矣。噫吾與吾友獨不得同其時，買舟幔亭峯下，輟棹於石門塢前，獲躋仁智堂，日侍講道之餘，退而與諸門人詠歌周旋於隱求·觀善之間，以庶幾萬一也。李君要余書權歌於逐曲之上。既書因識所感於卷末而歸之。嘉靖甲子二月初吉，眞城 李滉 謹跋。¹²⁶⁾

갑자년은 퇴계 64세 때이다. 이 뒤에도 갑자년 踏靑日에 金箴의 帖에 跋한 글에도 주자 평생의 講道棲息하던 내력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주자가 처음 「建寧府 崇安縣 五夫里 屏山之下，潭溪之上」에 居한 뒤 41세에 「建陽蘆峯之顛，雲谷之中」에 「晦菴」을 지었으니 閩地方이었다. 50세에 南康軍에 부임하여 白鹿洞書院을 興建하고 3년 뒤 임기 만료로 임지를 떠났다. 이 곳은 江東이기에 閩中과 멀었다. 54세에 武夷精舍를 짓고 62세에 漳州로부터 돌아와 建陽 同由橋에 考亭을 짓고 다시 옮겨 竹林精舍를 지어 9년간 거처하다가 71세로 易箒했다”¹²⁷⁾고 하여 주자의 棲息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도산서당이 준공된 뒤의 일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한 생활의 일면이 아닐까 한다.

위의 두 跋文에서 우리는 퇴계가 武夷山에 가 보진 못했지만 그 못가 본 안타까움을 武夷圖로 달래고 權歌十首를 음상하고 和作도 하면서 주자가 靈仙窟宅의 땅을 鄒魯道義의 마을로 바꾸어 준 데 대한 흠모의 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또 퇴계는 서울에 있을 때 武夷圖를 구해 왔으나 踈略하여 볼 품이 없더니 李仲久가 보낸 一本이 매우 훌륭하여 權歌 소리가 귓전에 황홀한 것 같다고 했다. 이로 볼 때 퇴계가 武夷山에서 精舍를 짓고 講道했던 주자의 風節을 사모하여 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앞의 「答李仲久」에서도 武夷圖를 따로 그러서 보내 주겠다는 데 대해

126)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退全，책2, 권43 跋 382頁.

127) 同註 126), 跋金景庵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

기뻐하는 뜻이 역력히 나타났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나를 알 수 있다. 이듬해 乙丑年 65세에 李仲久에게 준 답서에서 보내 준 武夷圖에 아래와 같이 그 고마운 뜻을 전했다.

“武夷圖를 아직껏 留意했다가 그린 뒤, 精絶히 표구까지 해서 보내 주셨군요. 洞府의 烟霞와 大隱屏의 유적들을 입수하여 눈을 비추니 매양 펴 볼 때마다 귓가에서 權歌聲을 듣는 듯합니다. 그대의 지극한 호의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武夷圖. 留意畫成 裝軸精絶 珍重寄來, 洞府烟霞 大隱遺跡, 入手照眼, 每一被玩, 耳邊如聞權歌之聲矣. 感篆至意 當默會也.¹²⁸⁾

이러한 퇴계를 중심으로 한 주자의 생활 欽佩는 우리 나라 독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퇴계 자신이 도산서당을 지어 講學棲息하면서 陶山十二曲을 지은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며 이종의 영향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율곡의 高山九曲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¹²⁹⁾ 이상 언급해 온 것, 주자시에 대한 관심과 수용, 權歌에 대한 이해 등을 가지고 한국문학 비평사상의 지위를 규정해 보기로 한다. 한국문학비평사 전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소 억지가 개입되더라도 양해 있기 바란다.

3. 韓國文學批評史上的 위치

여기서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듯이 전혀 나의 管見에 속한다. 私見을 정리해 본다.

고려시대 문학비평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天才批評」, 「個人批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¹³⁰⁾ 이는 李奎報의 「氣不可學得」¹³¹⁾에서 잘 나

128) 答李仲久, 乙丑 65세. 退全, 책1, 권11 書 315頁 上右.

129) 栗谷 42세(宣祖 10년, 1577)에 海州로 退去 隱屏精舍를 짓고 이듬해 43세(1578)에 高山九曲歌를 지음

130) 拙稿, 「其詩不甚高」小攷. 韓國詩歌研究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1. 7. 15

타난다. 시에서 가장 주된 것은 「意」요, 「意」는 또 「氣」가 주이다. 때문에 氣의 優劣에 따라 意를 우선하느냐? 丹青을 우선하느냐?가 결정된다. 이규보는 氣가 졸렬한 사람은 意를 뒤로 미룬다고 했다. 따라서 걸치레만 번지르르한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는 중국 죽림 칠현중의 嵇康의 「神仙非積學所得」¹³²⁾의 견해나, 더 올라가 曹丕의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¹³³⁾ 등의 견해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내질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氣라고 하는 것은 우선 「動」을 연상시키기에, 내면 심성의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心の 작용이 外物을 대상으로 「構思」, 「設意」하는 쪽이라 하겠다. 따라서 心性存養의 노력이 결여되고 外物에 지대한 관심을 쏟게 된다. 이렇게만 되면 外物의 理 곧 「物理」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이 物理을 어떻게 분석하고 設意 構思하여 작품을 만드는가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物理의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찾아 낸 의미를 잘 「設, 構」하는 사람이 「氣優」한 사람이란 생각이다. 말하자면 「天才의 氣」 곧 「才氣」라 할 수 있겠다. 이 才氣에만 모든 가치를 주게 되면 「放氣」가 되어 극단으로 흐를 경우 匠人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氣崇尚의 풍조가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조와 닮은 것이다.¹³⁴⁾ 人心의 이런 작용은 「向外用心」이기에 心の 存養省察에 해로울지언정 도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 宋代 道學家의 주장이다.¹³⁵⁾ 송대 도학이

131) 論詩中微旨略言. 東國李相國集 권22 雜文.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影印本. 檀紀 4291년 2월 20일 발행.

132) 「……以爲神仙稟之自然, 非積學所得, 至於導養得理, 則安期·彭祖之倫可及, 著養生論」. 晉書 嵇康傳, 鼎文書局, 台北, 中國 69년 초판.

133) 魏文帝, 典論 論文一首, 「……文以氣爲主, 氣之清濁有體 不可力强而致 譬諸音樂 曲度雖均 節奏同檢 至於引氣不齊 巧拙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 文選, 권52, 台北, 藝文印書館, 中國 65년 초판

134) 牟宗三, 才性與玄理, 臺灣 學生書局 印行, 中國 67년 10월 修訂四版(臺再版). 牟氏는 이 책에서 魏晉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骨子가 才性和 玄理라고 보고 才性은 宋明理學에서 보면 氣質之性이라고 규정했음.

135) 拙稿, 宋代評語小攷 -주자의 예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3輯, 영남중국어

고려말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도 차차 도학에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되어 그 이론을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학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시대를 고려 李齊賢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도학을 云謂하기엔 이른 것 같다.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氣崇尚의 사조가 사라지고 차차 「理」를 강조하기 시작한다.¹³⁶⁾

물론 여기서 말하는 理는 더 깊이 살펴 봐야겠지만 고려에 잘 나타나지 않던 「理」자가 조선에서는 詩文을 논하는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부터가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조선과 고려의 문학 비평의 특색을 評語, 風格語로서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¹³⁷⁾ 고려 때 「意·氣·風·骨」 등에 관심을 보여 評語도 따라서 그 쪽으로 치우쳤고 조선은 도학의 영향으로 「平, 易, 淡, 瀟散, 瀟灑, 枯淡」 등의 評語가 지배하고 있었음에서도 잘 드러난다.¹³⁸⁾ 이런 고려와 이조의 차이는 우리 선인들이 「心」을 어떻게 작용시켰는가의 차이라고 보겠다. 고려는 外物의 이치, 곧 物理에 주로 관심하기에, 우리의 心이 向外하기에 「向外心作用」이라 볼 수 있으니 心作用의 「離心力」쪽이라고 보겠다. 「物理를 設意」하는 氣優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외물의 현상에 힘(氣)차게 집착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조선은 도학의 영향으로 心工夫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向內를 강조하는 「爲己之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성은 일용사물과 복잡다단한 교섭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기에 外物이 다른 각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外物이 玩弄의 대상이 아니라 심성의 存養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각성에서 조선도학가들의 시에는 「觀物」이란 제목이 많이 붙게 된 게 아닌가 한다.¹³⁹⁾

다만 外物을 보되 고려 시인들 처럼 物을 玩弄하다가 「心の 主宰力」

문학회, 1981. 10

136) 拙稿, 備齋評論小攷.

137) 拙稿, 李仁老評論研究, 白雲文學研究, 崔滋評論研究 등 참고.

138) 拙稿, 論沖淡瀟散, 安東文化, 創刊號, 1980. 12

139) 北宋 邵雍의 觀物內外篇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하겠다.¹⁴⁰⁾ 「心の主宰」가 「敬」이기에 敬을 강조하게 된다. 心은 身の 主宰요, 敬은 心の 主宰라고 한다. 따라서 外物은 모두 心の 主宰下에 놓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程朱계통에서는 이래서 敬의 상태를 유지하는 「居敬」을 중시한다. 敬은 心の 動靜을 관통하기에 「敬貫動靜」이라고 한다. 居敬에서 理를 탐구하기에 「居敬窮理」라고 한다.

따라서 居敬, 곧 心을 收斂해야 한다. 곧 「收放心, 求放心」해야 한다. 「才氣放肆」의 氣優는 잘 되면 좋으나 못되면 더 나빠기에 언제나 氣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心이 未發(性, 體, 靜)일 때 涵陽, 存養하고 已發(情, 用, 動) 일 때 察識, 省察해야 한다. 「未發, 已發」이란 中庸에 나오는 말인데 전자를 性, 후자를 情으로 갈라서 본다.

性이란 것은 天理가 人心에 담겨 있는 것이기에 人心이 動할 때는 動하는 心이 性에 합치되는 가를 항상 살피고 합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 살피고 노력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形氣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形氣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性이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을 「本然之性, 天地之性」, 뒤를 「氣質之性」이라고 한다. 本然之性의 실현은 善 그 자체이지만 氣質之性의 실현은 善도 되고 惡도 될 수 있다고 보기에, 기질지성의 기질을 본연지성에 합치시키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變化氣質, 復性工夫」라고 한다. 道學家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의 氣는 기질지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氣의 작용을 전폭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에 성찰을 그만큼 중요한 공부로 강조한다.

성찰은 心이 내 가까이 있을수록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心이 멀리 나에게서 달려 나가서는 안된다. 중심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고 중심 그 것이어야 한다. 멀리 나가 있는 마음을 중심으로 「向」하게 해야 한다.

140) 北宋 程伊川은 書經 旅獒篇의 「玩人喪德, 玩物喪志」를 끌어와 作文 역시 玩物이기에 喪志한다고 했다. 二程全書, 권1, 遺書 권18, 伊川先生語, 中華書局印行.

이와 반대는 心이 外物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것이다.

전자를 「心の 向內」라고 한다면 후자는 「心の 向外」라고 하겠다. 전자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달려 들어오려는 힘이기에 「向心力」이라 하고 후자는 반대이기에 「離心力」이라고 한다. 후자가 고려시대 詩文家의 태도라면, 전자는 道學家係 詩文家의 태도라고 하겠다. 이래서 도학에서는 「學者の 詩文」과 「詩文家の 詩文」으로 구분하게 된다.¹⁴¹⁾ 그러나 위의 두가지 작용은 조화가 절대 필요하다. 離心力과 向心力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心の 主宰力이 상실된다. 居敬이 안 된다. 따라서 窮理도 안 된다. 「正心, 心正」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武夷權歌에 대한 퇴계의 이해가 어떤가에 생각을 돌려 보자. 한마디로 말해서 주자가 九曲의 景物을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작자의 입장에서 作詩意圖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第九曲에 대해서는 「學問入道次第」로 보는 註家の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河西의 태도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高峯의 「尋常看作戒警之事」나 「戒遊者不可舍此而他求也」¹⁴²⁾ 등을 註家 「牽合之說」에 이끌렸다는 이유로, 곧 第九曲을 究竟處로 보는 明彦의 견해도 찬동하지 않았다. 왜냐면 주자가 그렇게까지 구구한 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공자의 일상 생활의 규범과 감정이 원만한 조화를 이룬 데서도 알 수 있다.¹⁴³⁾

이는 朱子盲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학에 근거를 둔 생각이다. 퇴계는 「매미소리」, 是非에서도 「歇後語」나 「緊切語」나? 하는 문제로 제자와 심각한 異見을 보였던 것이다.¹⁴⁴⁾ 이는 「心工夫」에 있어서의 「本末」, 是非라고 하겠다. 질문한 제자는 「매미소리」 따위는

141) 李源周, 퇴계 선생의 문학관.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1, 拙稿, 이퇴계문학비평小攷.

142) 奇大升, 高峯全集(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發行 1979. 3. 10 復刊) 往復書, 권1, 別紙武夷權歌和韻 중 第九曲의 案語임.

143) 錢穆, 修訂重版 四書釋義 論語要略 제3장 孔子之日常生活,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國 67년 7월 再版(學初版).

144) 拙稿, 이퇴계문학비평小攷.

마음 공부에 (「心學」에) 歇後語 곧 末이라는 태도였다. 그러나 퇴계는 「本末兼學」의 원만한 사고에까지 닿아 있기에 자신 있게 「매미소리」 담긴 주자의 편지를 그의 節要書에 실었던 것이다. 末도 「道の 一端」이기 때문이다. 一端은 分殊다. 理一分殊라는 입장에서 보면 分殊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주자가 延平에게서 들은 旨訣 중의 하나가 바로 分殊의 강조다. 이단과 구별되는 유가의 독특한 이론이다. 퇴계도 절대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理一은 本이요 分殊는 末이다. 本 없는 末이 없고 末없이 本이 존재할 理가 없다. 本에만 지나치게 얽매이면, 「사람으로 하여금 拘束切蹙하게하여 寬展樂易, 願慕興起의 마음을 없애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¹⁴⁵⁾고 한 것이다.

이런 도학적 理一分殊 이론이 바로 註意를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퇴계는 작자 편에서만 詩評을 하는 게 아니고 독자 편에서 시의 功用을 認可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현대 비평의 「의도적 오류」와 배치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시를 「作詩, 知詩, 用詩」 세방면으로 관찰하는 원만한 비평태도라 하겠다. 또 七絶一首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상세하고 집요하게 사색을 거듭하여 공정한 해석을 내리고자 한 진지한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이런 뜻으로 봐서도 퇴계의 비평이 한국문학비평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하다 하겠으니, 精査派의 분석도 무색할 정도라 하겠다.

Ⅲ. 結 論

퇴계는 聖學(心學)에 대한 열의가 투철했다. 그래서 設心이 차라리 聖人을 배워 그 경지에 못 미치고 말지라도 한 가지 착한 일로 이름을 얻고자 하진 않았다고 했다.¹⁴⁶⁾ 또 聖人之學 義理之學을 하자면 窮理

145) 144)번 주와 동일.

146) 「……向上之心 至死如一日. 其設心以爲 寧學聖人而未至, 不欲以一善成名. 嘗

가 필요한데 이는 居敬에서 가장 가능하다. 居敬은 곧 「心の 主宰力」의 지속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正心)에서 가능하다. 마음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心은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統攝하는 것」이기에 佛家異端과 다르다.¹⁴⁷⁾ 곧 「心統性情」에서의 心學이다. 퇴계는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明師友가 없어 도를 깨닫지 못했고, 더군다나 벼슬길에 골몰하여 素業에 전념할 수 없었다. 늦게 朱子大全을 읽고부터 (道를) 조금 봤으나 깊이가 얕다고 말했다.¹⁴⁸⁾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하루에 義理之書와 文章之書를 반반씩 읽으라는 先儒의 말을 인용하면서 文章之書만 읽어서는 「用工之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¹⁴⁹⁾ 곧 義理之書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는 바로 心工夫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心工夫는 「先涵陽 後察識」의 순으로 動靜體用을 아울러 해야 한다. 이는 「作用是性」으로 보는 佛家の 心觀과는 다르다. 儒家(程朱·退溪)에서 「作用」은 「氣·情」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絶對善이 아니고 有善有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全體大用, 通體達用의 義理之書를 기본으로 하고 文章之書도 읽은 것이다. 文章之書라고하여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居敬(特敬)에서 읽으면 求道에 도움이 되기에 -지나치게 拘拘해지거나 拘束切蹙하지 않고 寬展樂易·願慕興起하는 심정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學問所以正心」¹⁵⁰⁾을 강조한 까닭이다.

곧 心學에서 문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

見世人有自許太過者 深以爲非, 必以爲戒(鶴錄)」。退全, 책4, 언행록, 권2 類篇 30頁 上左.

147) 唐君毅, 중국철학원론, 導論編 原心.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國 68년 2월 四版(臺三版).

148) 「先生曰 余自小有志於學, 不可謂無學問之功, 然不得與明師友難疑辨惑. 於道理殊無的見. 學未優 而遽至於登任, 則又不專於素業矣. 自近年讀朱子大全後 稍有見處, 然安敢測其門牆之深奧乎(雪錄).」同註 146) 24頁 上中.

149) 「先生曰 先儒云 一日之間 半則讀義理之書, 半則讀文章之書. 學者若欲求道而讀文章之書, 則難用工之地矣(雪錄).」同註 146) 28頁 上右.

150) 同註 146) 180頁 上右.

두 학문에 관련 된다는 말이겠다. 따라서 주자의 시문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거기다가 李剛而가 朱子시를 간행코자 하니가 愛誦하는 朱詩를 더 넣어서 출간해 달라고 편집, 조판에까지 세심히 도움말을 주면서 부탁한 것이다. 朱詩를 모두 열심히 읽었지만 출판할 때 더욱 언급된 시들로는 武夷權歌十首를 비롯하여 武夷雜詩, 武夷洞天, 宿休菴, 齋居感興二十首, 雲谷二十六詠, 雲谷雜詩十二首, 奉同張敬夫城南雜詠二十首, 西林院諸詩, 南嶽唱酬, 東歸亂藁, 百丈山六詠 등이 있고, 朱詩를 奇高峯과 李龜巖에게 풀이해 준 것도 있으며 작자를 가려내는 訓蒙詩 등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 주자시를 「和, 次, 用韻」한 것이 8종이나 되는데 제목에서 날짜가 같은 것, 旨趣가 같아서 빌어 온 것, 처지가 비슷하여 끌어 온 것 등 다양하며, 이 밖에도 직·간접으로 끌어다 자신의 시에 녹여 부은 것이 수 없이 많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 되는 武夷權歌 10수에 대해서는 註意에 충신했던 金河西의 태도에도 찬동하지 않았고, 특히 第九曲에 대해서는 奇大升의 견해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이십여년 사색을 거듭하여 얻은 독자적 해석을 제시했던 것이다. 金·奇 두사람은 그저 주자의 본의를 생각하기 전에 金은 전적으로, 奇는 부분적으로 陳註에 이끌렸다. 그러나 퇴계는 이와는 달리 작자인 주자 자신의 본의를 「景致之語, 本只爲景物而設」이라 하여 「學問入道次第」로 풀이한 註意를 구구하다 하면서 주자를 胸懷가 넓은 인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자 편에 서서도 權歌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으니, 곧 李剛而에 보낸 답서에서 「註家が 선생의 본의를 정확히 터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로 註解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作詩, 知詩에만 국한한 비평이 아니라 用詩에도 심각한 관심을 쏟는 증좌라고 하겠다. 이는 주자의 「作詩·知詩·用詩」 세방면의 비평태도와 닮은 것이라고 하겠다.¹⁵¹⁾ 이는 현대 비평

151) 郭紹虞, 朱子之文學批評, 近代文史論文類輯 中國文學批評家與文學批評二, 朱東潤 等.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國 60년 10월 초판.

태도에서 말하는 「의도적 오류」에 저촉되는 듯하나 오히려 비평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7절 1수를 가지고 20여년 집요하게 분석하고 사색을 거듭한 것은 현대분석비평에 필적할 만한 노력이며 精査派의 分析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밀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문학 비평사상에 하나의 뚜렷한 도학가문학비평의 봉우리를 쌓은 게 아닌가 한다. 또 武夷圖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우리 나라 繪畵史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을 듯하며 그림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취급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종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 주고 있는 것 같다.

文理도 부족한 처지에 힘겨운 문제에 손을 대어 잘못도 많고 억지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읽으시는 분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